

제2회 119문화상
소설
(수상 예정작)

목 록

접수번호	제 목	페이지
38	흉터	1
54	돌아오지 않는 구급차(PTSD)	8
58	슈퍼 영웅, 멸화군	18
98	헬멧의 안쪽	28
118	그때 그 소방관	36
183	어느 소방관의 꿈	47
205	네가 꼭 소방관이 되었으면 좋겠어	54
215	호루라기	61
314	생일	63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른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 근육이 뒤틀린 듯 떨려왔다. 붉은 담뱃불이 사람의 입에서 손으로 그리고 튕겨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몸이 제멋대로 움찔거렸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슬리퍼를 끌고 그들을 지나쳤다. 턱이 제멋대로 떨려온다. 폐에 안개가 낀 듯 목과 가슴이 빠근하다. 입을 틀어막고 비좁은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다. 서늘한 냉기로 가득한 얼음장 같은 방에 발을 대자 숨털이 곤두선다. 난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전등을 밝히고 덮어쓴 후드를 내렸다. 흥측하게 일그러진 불꽃이 지나간 흔적이 오른 귓불을 타고 뺨 뒤편과 목 어깨를 가로질렀다. 아버지, 어머니를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나의 삶을 통제로 불살라버린 낙인이다. 손에 든 비닐 봉투에서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시고 침대에 던졌다. 침대엔 이미 빈 물통과 종이 휴지 따위가 널브러져 있었다.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다. 바닥의 냉기만이 아직도 뜨겁게 이글거리는 내 흉터를 식힐 수 있다.

깜빡 잠이 들면 난 언제나 굳어버린 몸으로 무기력하게 붉은 방속에 갇힌다. 몸은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 흐릿한 시야와 검은 연기, 뱀의 혀처럼 붉게 날름대는 불꽃이 나의 팔다리를 휘감고 나오지 않는 비명과 점점 좁아지는 열화의 공간에서 난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발버둥을 친다.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눈을 떴다. 주먹을 짝 쥐어 핏기가 사라져버린 양 손과 양다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피의 씹쓸한 맛, 축축한 등이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 방 바닥에 양 손바닥을 댄다. 차갑다. 이 공간은 차갑다. 난 안전하다. 내 몸은 안전하다. 숨을 크게 내쉰다. 찬 공기를 한 움큼 들어 마시고 복도로 나왔다. 고시원의 공동주방에서 라면 냄새가 난다. “어? 출출해서 나오신 거 예요? 라면 먹으려고?” 옆 방의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남자가 어색하게 웃는다. “아뇨. 괜찮아요.” 냉동실을 열어 얼음을 하나 입에 물었다. 이가 시리다. 그럴수록 심장의 박동은 횡수를 줄인다. 다시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방에 들어왔다. 숨을 다시 한 번 크게 들이킨다. 냄새. 끔찍한 냄새. 냄새가 난다. 손이 떨린다. 어디지? 불안감이 바늘로 찌시듯이 뇌를 자극한다. 다시 복도에 고개를 내밀고 숨을 들이켰다. 그 냄새다. 어디지? 다시 복도를 지나 그 남자에게 다급히 물었다. “무슨 냄새 안 나요?” 막 라면을 한 입 집어넣은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냄새요? 무슨? 라면냄새가 너무 많이 나나? 새벽인데. 하하.” 남자는 너스레를 떠난다. 그 냄새가 아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심장이 물밖으로 나온 잉어처럼 튀어 오른다. 목 뒤로 식은땀이 난다. 나가야해. 도망가야 해. 머릿속이 새하얗다. 나는 슬리퍼만 신은 채 복도 끝의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1층에 도달해 현관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명확해졌다. 불이다. 검은 연기가 바로 앞의 원룸을 틀어쥐고 박살내려 하고 있었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불났나 벼!” 옆 주택에서 카디건을 걸친 아줌마가 소리치며 밖으로 나왔다. 불이야! 누가 소리쳤고 다들 119를 찾았다. “신고 했는데?” “아, 빨리 신고해!” “누가 신고 했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웅성거린다. “거기 119죠? 여기 불났어요!” 어떤 남자가 원룸에서 황급히 나

오며 휴대폰에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을 쳤다. 한걸음, 한걸음 여기서 멀어져야 한다. 알람이 울렸고 연기만 보이던 원룸의 창문 틈으로 불길의 손을 뻗었다. 스프링클러. 그게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연기는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뿜어져 나왔다. 불길이 거세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원룸사람들이 다들 자다 만 얼굴로 옷만 대충 걸친 채 쏟아져 나왔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불이 꺼질까. 꺼져야 하는데. 나의 눈은 원룸의 불꽃에 고정되어 있다. 그 불꽃이 내게 오기까지는 30미터도 넘는 거리였지만 때론 불꽃이 바람보다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다. 창문에 사람 손이 보였다. 잠깐 머리카락 같은 것도 보였는데 사라져 버렸다. 저, 저, 저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잘못 본 것일까? 다른 사람도 봤을까. 사람이었다면 봤겠지? 소방관들이 구해주겠지? 그냥 검은 봉지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슬리퍼를 끌었다. 40미터. 느리지만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온 힘을 다해 끌어당기는 다리는 쥐가 날 지경이다. 소방관들은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 내렸다. 그들은 뭐라 소리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온다. 살았다. 끝났다. 처음 든 생각은 본능적이고 단순한 단어들이다. 물이 그렇게나 쏟아지는데 성이 난 멧돼지처럼 불길은 더 거칠게 일어났다. 한 소방관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다. 어찌지. 벌써 잿가루를 얼굴에 한가득 뒤집어 쓴 소방관이 나에게 도달했다. “혹시 아직 못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 고시원...” 말이 안 나왔다.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만약 내가 잘못 본 것이면? 그렇게 없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 소방관들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내가 고민하는 사이 그 소방관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옮겨갔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악몽이 떠오른다. 붉게 타오르는 방 한 가운데의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된 것일까. “저, 저기... 위에서 세 번째 창문에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손이랑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어깨의 무전기로 무어라 말을 한다. 원룸의 입구에 세 명의 소방관이 줄지어 선다. 안 돼! 나 때문에... 소방관들도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 괜한 말을... 그러면서도 나의 발은 착실하게 멀어졌다. 50미터. 더 이상 멀어지지 못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 명은 보이지 않는다. 들어간 것이다. 그 불 속으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끔찍한 공간에 뛰어든 것이다.

불길은 점점 줄어들었다. 쏟아 부은 물로 하늘이 뿌옇게 변했을 무렵, 시끄러운 무전이 퍼지며 소방관들의 표정이 급박해졌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달려 나가고 네 명의 사람이 입구에 나타난다.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살아 있다. 나의 심장은 어느덧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앰블런스가 내 앞을 지나쳤다. 불길은 이내 모두 사라졌고 연기만 남아 하늘을 검게 뒤덮었다. 아까 소방관이 다시 나에게로 온다.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밝게 보였다. “고맙습니다.” 어째서 그에게 내가 그런 말을 듣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불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장본인인데, 구한 그 사람이 그들의 가족인 것도 아닌데 왜 그가 내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들의 용기는 불의 무서움을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중요한 가요.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소방관의 답은 시원했다. 그들은 하나둘 흩어져 가는 사람들 틈에서 호스를 정리하고 남은 불씨가 있는지 점검한다. 날이 밝아온다. 아까는 붉고 뜨거웠던 열기가 지금은 따스하게 뺨을 어루만진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도 같은 불꽃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아직 코끝에 남은 그을음 향이 속을 메스거리게 만들었지만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차가운 방 안의 작은 창문 틈으로도 선명하게 보이는 원룸의 재와 그을음을 보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되된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다.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 가족이 살던 집, 부모님의 옷, 사진, 내가 억지로 쓰던 일기와 아끼던 로봇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부모님의 장례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받아 영정사진으로 썼다. 지금의 나보다 어린, 개구쟁이 표정을 짓는 두 사람의 개인사진이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불에 타는 것보다, 끔찍한 화상의 고통에 불에 타는 꿈을 꾸며 매일 깨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가족이었던 흔적이 깔끔하게 재가루가 되어 지워진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기억하려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희멀건 회 반죽이 되어 눈, 코, 입을 자꾸 이리저리 붙이고 있다는 것이 비참했다. 한참을 머릿속에 주물럭거리던 어머니는 어느 영화에서 봤을 법한 이름 모를 배우의 얼굴이 된다. 나는 그 형상을 다시 뭉개버렸다. 커튼을 치고 시계를 본다. 한 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불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거나 따듯한 곳에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결국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다다른 곳은 냉동 창고였다. 출근해 서리 낀 냉동 창고를 만질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회사는 수입산 냉동고기들을 적재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냉동고 안에서의 일은 한 여름에도 동상에 걸릴 만큼 춥고 고되었지만 나에게서는 유일하게 적성에 맞는 일이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전부다 외국인이었다. 그들은 한국인인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엄지를 치켜세워주곤 했다. 그들은 어설픈 한국말로 서류를 들고 욕설만 하는 녀석들과 달리 진짜 남자라고 했다. 그들에게 진짜 남자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얼음은 모든 것을 보존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도, 이미 썩었어야 하는 것도, 심지어 남극의 만년설은 수십억의 시간도 보존한다. 그 차가움이 나를, 남은 나의 존재와 흩어져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지켜주길 바랐다.

냉동 창고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엄수해야한다. 너무 오랜 시간 머무르면 동상에 걸리기 십상이라 작업자들은 한 두 시간에 한 번씩 밖으로 나와 드럼통에 피운 불에 결불을 쪼고 는 했다. 나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다.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발을 녹이는 것은 필수였기 때문에 그 불꽃 앞에 서야만 했다. 잡목이나 나무상자들을 대충 쭈셔 넣고 피운 불은 매캐한 연기와 함께 과거의 악몽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엔 약간 비릿한 냄새, 그리고

점점 목을 따끔거리게 만드는 역겨운 탄내와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이 따라온다. 그 냄새에 몸이 마비 될 때쯤, 어느새 발을 들인 불길과 살을 익히는 뜨거운 온도가 가까워진다. 공포에 지배당한 몸은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그대로 죽음을 기다린다. 옆의 직원이 굳어버린 나의 몸을 일깨웠다. 이곳은 그때의 그곳이 아니다. 공간은 다시 현실로 회귀한다. 언 몸도 조금은 풀렸고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PTSD.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머리보다 몸이 그것을 먼저 기억한다. 사고이후의 나는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려웠다. 당연히 불을 켜거나 요리를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부모님의 사망과 함께 찾아온 장애는 나를 계속해서 절벽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평소에 먹는 식사라고는 차가운 즉석 밥과 김치, 김으로 때우는 끼니가 대부분이었다. 정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포장해와 한참을 냉장고에 두었다 먹고는 했다. 그마저도 그 뜨거운 음식을 들고 있을 때면 불안감에 식은땀을 무척이나 흘려야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은 꿈도 못 꾸었고 사고가 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연기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고기 집을 지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를 한 적도 있다. 돈을 벌기시작하며 가장 어려운 것도 그런 화기가 있는 식당을 가는 것이었다. 속이 안 좋다거나 일이 있다며 둘러대며 빠지기도 했지만 식당 근처로 가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없었다. 언젠가 냉동 창고의 동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물은 적 있다. 그때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라면이라고 했다. 동료는 웃었고 장난스럽게 라면을 참 좋아하냐보다며 생일에 선물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솔직하지 못했다. 그 앞에 ‘따뜻한’이란 말을 빼먹었다. 차가운 곳에 두어 식은 컵라면정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끔 먹을 수 있었으나 따뜻한 라면은 그럴 수 없었다. 원래 라면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아마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그 따뜻한 라면을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릴 적 주말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는 날에만 특식으로 끓여주고는 하던 그 따뜻하고 꼬들꼬들한 라면. 그 라면 한 그릇을 다시 맛볼 수 있다면. 나는 모순되게 군침과 오한을 함께 느낀다. 아는 맛이 무섭다.

의사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다. 이대로 간다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감기 같은 흔한 병에도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했다.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감기나 만성적인 피로, 불면과 근육의 경련 등을 가끔 겪기는 했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의사에게 그러한 증상을 털어놓자 의사는 정신과를 소개했고 거기에서 PTSD란 말을 처음 들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은 탓에 천천히 접근하기보다는 충격요법을 쓰는 것이 빠를 것이라 했다. 말 그대로 불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했다. 불을 가까이하고 다루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듦으로써 장애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부작용도 설명해주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차가운 삶에 익숙해져버려

불편함조차 못 느끼게 되어가는 와중에 다시 불속으로 뛰어들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일이었다. 문득 원룸 화재의 소방관이 떠올랐다. 불길 속을 뛰어드는 사람들. 그들도 같은 인간일진데 어째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이 훈련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나 역시 그런 훈련으로 이 증상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황급히 이 지역의 소방서를 찾았다. 무례한 일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셈 치면 그것 역시 소방서의 일이었다.

퇴근을 하자마자 혈레벌떡 소방서를 찾았다. 막상 소방서 앞에 서자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사무소도 아니고 소방서는 평생 갈 일이 없는 곳이었다. 구급대도 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가지 소방서로 가는 건 아니니까. 다행히 우물쭈물 하고 있자 제복을 입은 소방대원 한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방대원은 나를 꽤나 경계하는 눈치였다. “아, 저번에 원룸 화재 진압하신 소방대원분을 찾는데요.” “원룸이요? 아 저번 주에 그 원룸 화재 말하시는구나? 저도 거기 있기는 했는데 누구 찾는 분 있어요?” 소방대원은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아, 제가 그 원룸에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좀 물어 볼 것이 있어서요.” 소방대원은 시계를 잠깐 보더니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네, 물어보세요.” “그때 불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텐데 어떻게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훈련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훈련은 없죠. 뭐, 우리는 방호복도 입었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저희 일인 걸요? 당연한 거죠.” 그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은 타고 나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왜 궁금하신 거어요?” 급격히 어두워지는 나의 표정을 눈치 챈 것인지 소방대원은 돌아가려는 나를 붙잡았다. 나는 말없이 쓰고 있던 후드를 벗어 흉터를 보였다. 불길이 그대로 활취고 간 일그러진 자국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이 흉터를 보면 불쌍해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은 안타깝다고 한다. 상처가 있으면 흉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 흉터는 그리도 특별히 불쌍하거나 혐오스러운 흉터가 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화상을 입으셨네요. 그냥 데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화재가 꽤 크게 났겠는데요.” 소방대원의 답은 냉정하리만큼 단 답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환자들과 화상과 흉터를 봤을 것이다. “집이 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저는 불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죽을 거라더군요. 불을 극복해야 한다 길래 저번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것이 생각나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였구나.” 소방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거기엔 한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일하고 당직 서던 선배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화학공장에 폭발사고 있었잖아요? 거기도 저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들어갔는데 저만 살아왔네요. 당신 말대로 태어날 때부터 불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 한번 일어나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동료, 친한 형이 타 죽었는데 다시 불어 뛰어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 1초라도 망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당신같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난 그게 아깝고 마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한 번만 하고 다시 불길에 뛰어 들게 됩니다. 타죽는 악몽, 숨 막혀 죽는 악몽 많이 꾸죠. 그런데도 제가 구한 사람들의 숨소리가 그 악몽을 덮어줬습니다. 저도 많이 두렵습니다. 이 형이 나의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전 지금 알람이 울리면 뛰어 나갈 겁니다. 영웅은 아니어도 나 하나로 당신과 같은 분들이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부디 포기하지 말고 살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묵직했다. 그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닌 그와 소방관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이제껏 내가 생각하던 기억은 부모님의 비명과 불길 죽어가는 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 불길을 헤치고 나를 꺼내준 소방관이 있었다. 그때 날 구해준 그 소방관도 무서웠겠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내가 가질 최악의 기억이 최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매일이 최악의 갱신일 테니까.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소방대원은 손을 마주잡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난 명찰에서 그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으나 그는 나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힘내라고 말하곤 다시 소방서로 들어갈 뿐이었다. 난 한 숨을 푹 내쉬고 다시 후드를 썼다. 처음으로 불에 도전할 마음이 생겼다.

고시원의 공동주방은 적막했다. 낮은 조도의 조명과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채웠다. 나는 설거지 통 옆의 가스버너로 다가갔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버너에 냄비를 얹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겐 몹시도 어색한 일이었다. 이제 불만 당기면 되었다. 물이 끓을 것이다. 라면과 스프를 넣고 면이 익으면 불을 끄고 냄비를 받침대에 놓아 라면을 먹으면 되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순서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불을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했고 불이 솟구쳤으며 나의 얼굴과 몸뚱이는 녹아내렸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나의 흉터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불길 속에서 죽어갔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냄비는 여전히 차가웠고 가스버너는 아직 꺼진 채였다. 주먹을 틀어쥔 손에 땀이 묻어나왔다. 나는 이 불꽃의 벽을 부수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 속을 뛰어 드는 생명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버너 손잡이를 잡았고 재빠르게 돌리자 불꽃이 튀었다. 가스가 새어나오며 터질 듯이 불길이 일었다 사라졌다. 실패다. 한 번 더 돌려야 한다. 앙다문 이 때문에 턱이 아려왔다. 포기할까. 이런 일을 해낸다고 바뀌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일 것인데. 나의 흉터와 부모님의 죽음. 올라갈 곳 없는 이 바닥의 삶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럼에도 그들은 불길 속을 헤매

켰지. 다시 불을 댕긴다. 불꽃이 튀어 오르며 가스 새는 소리가 난다. 불이 붙었다. 불의 냄새. 모골이 송연해진다. 물이 끌어 오른다. 라면을 집어 던지다시피 냄비에 넣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힘이 빠지고 머리가 아찔하다. 심장이 요동친다. 맛있는 냄새가 올라온다. 냄비는 뜨겁다.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해냈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는 불을 꺾다. 젓가락을 들었다. 하얀 연기와 라면의 냄새가 공간을 밀도 있게 채운다. 입을 벌리고 면을 집어넣었다. 뜨겁다. 흥터가 꿈틀거린다. 식은땀이 아닌 뜨거운 땀이 이마와 등줄기를 따라 맺힌다. 이 맛이였다. 이 맛. 내가 두려워하고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기억하고 싶던 맛. 뜨거운 라면의 맛이였다. 나의 젓가락질은 점점 빨라지고 뜨거움은 증기가 되어 무너진다. 나는 땀으로 온 몸이 물든 채 흥터의 갈라진 틈을 따라 한 뼘씩, 천천히 거친 허물을 벗어 내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유난히 장마가 빠르게 시작되었다. 꼭 누군가 목 놓아 슬피 우는 듯한 감정이 느껴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몇 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안전센터의 밖 사람들은 색색의 우산을 들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것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같았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여러 도시에서 침수와 수난사고가 빚발쳤다. 각종 뉴스 채널에서는 폭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지역 대비, 날씨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 안전센터에도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구급대장님은 종이컵에 커피 믹스와 뜨거운 물을 받은 후 TV 앞으로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도 비가 정말 많이 오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네요.”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어서 뉴스에서도 난리입니다. 난리.”

대장님은 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간다. 대장님은 본인 책상 위에 있는 오래된 액자를 슬픈 표정으로 잠깐 바라보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한 모금을 깊게 마시며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대장님 책상 위 구석에 있는 액자는 걸보기에도 오래 되어 보인다. 몇 달 전 대장님과 대화하다가 잠깐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액자 속의 사람들은 높아 보이는 산 정상위에서 다 같이 함께 어깨동무하며 밝게 웃고 있다. 액자 속 붉게 물든 단풍과 높은 하늘이 유난히 눈에 띈다. 하지만 액자 속 사람들과 다르게 현재의 대장님 얼굴은 밝지 않았다. 그때 김현수 대원이 창문 밖을 보고 있는 대장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장님 오늘 혹시 몇 시에....?”

대장님은 김현수 대원의 얼굴을 잠깐 보고 몸을 돌려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얘기했다.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6시에 그 장소에서 보자.”

김현수 대원은 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자리로 돌아간다. 잠시 후 대장님의 핸드폰에 날카롭게 전화벨이 울렸다. 무슨 이유였을까 나는 그 전화벨 소리가 반갑게 들리지 않았다. 대장님은 핸드폰을 잠시 보더니 폭우가 내리는 센터 밖으로 잠시 나갔다. 대장님이 나간 이후도 그 전화벨 소리는 우리 안전센터 건물에 맴돌았다.

“무슨 일 있으신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창문 밖의 대장님 모습이 보인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몰라 손목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있었다. 폭우가 내리는 센터 밖은 꼭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장님은 긴 통화를 끝마치고 아무 일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센터 안으로 들어오셨다. 빗물로 축축하게 젖은 대장님의 낡은 기동화에서 물방울이 센터 바닥으로 떨어진다. 책상 앞에 앉은 나는 대

장님의 낡은 기동화를 보며 어제 있었던 기억을 깊게 떠올린다.

우리 대장님은 33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신 베테랑 소방관이며 그 어떤 누구보다 사명감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후배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대장님은 마치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셨던 나의 모교 고등학교 선생님과 같았다. 그런 대장님에게 나는 예전부터 한 가지의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장님은 매년 3월 초에 깔끔하게 다린 정복을 입고 어딘가 방문하셨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쭙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무거운 감이 돌아 그러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제 퇴근길에서 우연히 유정연 반장님에게 대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대장님의 과거와 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다. 퇴근길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려 햇빛은 보이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 붉은색 신호등에 멈춰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반장님은 약간의 떨리고 낮은 톤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민준아 사실 대장님이 너 생각보다 더 많이 걱정 많이 하신다.”

대답을 듣고 나니 유난히 붉은 정지 신호가 눈에 밟힌다. 그런 유정연 반장님의 눈을 잠깐 보고 대답했다. “네 반장님 정말 감사하죠 대장님에게.”

반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 대장님과 같은 관할구역에 있었어, 혹시 9년 전 경북 주택 붕괴 사고 들은 적 있어?”

유정연 반장님의 대답에 순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 예전에 소방관이 매몰되고 순직했었던 사건 말씀이죠? 그때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구조 차량의 진입이 어려웠고 매몰된 소방대원 구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유정연 반장님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현장에 있었어, 다른 대원들이 건물에 매몰되었다고 누군가 무전기로 소리치고 우리는 현장으로 뛰었지 그 장면은 정말 처참했지 믿기 힘들었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불법 주차 때문에 구조 차량 진입도 어려웠고, 우리는 맨손 장비로 붕괴 잔해 봤어, 대장님을 포함한 몇 명은 붕괴지점과 떨어진 후방에서 발견되어서 다른 대원보다 먼저 구조할 수 있었지만, 다른 대원들은....”

반장님은 말을 흐렸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그 순간 횡단보도의 붉은색 신호가 바뀌고 우리는 계속 걸었다. 유정연 반장님은 약간의 호흡을 내뿜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장님은 매년 3월 초에 그때 당시 동료들을 만나러 가 그래야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하셨거든 그게 동료들을 위함이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음 한편에 아직 묻어두

고 있는 기억일 거야 그리고 또 작년 사고도 가슴 아픈 사고를 두 번이나 겪었으니까.”
반장님의 말씀에 대장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잠깐 떠올랐다.

“그래서 대장님이 그러셨군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하늘은 어두웠고, 주변 건물의 간판들은 유난히 밝아 보였다. 집까지의 거리가 항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다. 유정연 반장님은 나의 마지막 말을 듣고 깊게 생각하다 걱정하는 눈빛을 지으며 얘기했다.

“민준아 내일 보자.”

“예 반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정연 반장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부엌 앞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았다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셨다. 많은 생각이 든다. 사실 대장님은 가까웠던 동료로 잃은 슬픔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던 동료로 잃었다는 것은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려 피부의 맨살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 아마 작년 구급차 전복사고로 인해 대장님의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다. 다른 대원들에게 마음속 아픔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들도 힘들었고, 다들 아픈 기억을 다시금 꺼내기 원치 않았다. 단지 혼자 앓고 힘들어 마음속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린다.

“예 대장님 전화 받았습시다.”

“민준아. 바쁘나.?”

“아뇨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괜찮으면 술 한잔 어때?”

가끔 대원들과 퇴근하고 센터 근처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마셨다. 포장마차에서 대원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고 한다. 나는 작년 사고 이후 모든 술자리와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전화기 넘어 들리는 대장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바로 택시 잡고 가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해 소주 1병에 어묵탕 하나를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는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차가운 소주 1병과 뜨거운 어묵탕을 탁자에 얹어 놓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뜨거운 어묵탕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진다. 고개를 돌려 대장님의 얼굴을 잠깐 보고, 차가운 소주를 소주잔에 가득 담아 가볍게 한잔을 털어 마신 후 잠깐의 알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포장마차는 테이블 구석에 있는 라디오 소리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웠다. 대장님은 깊은 생각 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도 약 먹고 병원 다니나?”

나는 작년의 사고로 심리상담을 받았고, 약을 먹고 있었다. 센터 대원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나를 배려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대원은 없었다. 나는 대장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다.

“예 가끔 먹고 병원도 가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얘기가 끝나고 대장님과 함께 소주를 한잔 더 비웠다. 소주 한 병은 금세 바닥이 보인다. 더 이상 소주를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아직 많이 힘들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내일이면 벌써 1주년 아니냐. 이번 추모식 때는 상호 보러 가야지?”

대답을 망설였다. 두 팔을 다리에 얹고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대장님은 그런 나를 보고 아무런 말썸도 하지 않았다. 소주병에 맺힌 물방울이 탁자 아래로 떨어진다.

“대장님 사실 아직 상호 볼 자신이 없습니다.”

상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더 원망스러웠다. 대장님과 마지막 소주를 마시고 일어났다. 집에 돌아가는 길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나를 괴롭게 했다.

그날은 아침은 조용했다.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의 알람을 끄고 출근 준비를 했다. 아침 밥을 가볍게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며 집 밖을 나왔다. 이상하게 오늘 아침 출근길은 유난히 흐렸다.

“비가 오려나?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마음속 한편에 무거운 감이 맴돌았다.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라디오의 음악을 들으며 안전센터로 가고 있었다. 도로 옆 신호등의 붉은색 정지 신호를 보고 멈췄던 나는 차량 앞 유리창에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갔다.

“어제 상호 자전거 타고 왔지 않았나?”

센터에 도착할 때 굵은 빗방울이 마른 바닥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차량에 있는 우산을 쓰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대장님과 반장님들에게 인사했다. 멀리 앉아있는 상호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했다. 센터 옆 창문 밖을 보니 빗방울이 거세진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굵은 빗방울을 피해 빠르게 움직인다. 전날 근무했던 근무자와 교대 점검을 실시한다. 인수인계를 끝마친 상호는 구급조끼를 벗으면서 다가와 나에게 말했다.

“야 민준아 이번 주 토요일 약속 잊으면 안 된다. 너 저번에도 바쁘다고 안 왔잖아 이번에는 예외 없는 거 알지? 동기들도 전부 온 데”

상호의 한 마디에 순간 머릿속 저번 주에 동기들끼리 했던 약속이 스쳐 지나갔다.

“아 맞다.”

“뭐야 잊고 있었냐?”

사실 이번 주 토요일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요즘 따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

에 들어가면 항상 녹초가 되었다. 센터에서는 쏟아지는 구급 출동에 기타 행정업무, 대학원의 석사 논문까지 하루도 나에게 마른 땅의 단비 같은 휴식은 없었던 것 같다. 상호의 질문에 조금 늦게 대답하였다.

“걱정하지마 이번에는 꼭 갈게.”

조금 늦게 대답한 나를 본 상호는 장난으로 툭 치며 말했다.

“진짜다? 마지막이야 꼭 와라!”

상호의 말 한마디에 무언가 깊게 와닿았다. 오랜만에 동기들도 보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상호에게 얘기했다.

“상호야 밖에 비 많이 오던데? 자전거는?”

상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센터에 두고 너 우산 빌려 간다.”

그 말을 하고는 상호는 빠르게 안전센터 밖을 나갔다. 나는 그런 상호를 보며 외쳤다.

“뭐? 야 잠깐만 나 우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상호는 나와 같은 대학교 동기다. 우리는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했고 비슷한 점이 많았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고 병원과 소방 실습을 통해 많이 친해졌다. 우리는 술을 같이 먹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상호는 항상 했었던 말이 있었다.

“우리 꼭 같이 소방관 하자”

상호를 보면서 나는 늘 똑같은 반응으로 장난으로 통명스럽게 얘기했다.

“누가 언제 소방관 안 한데?”

상호는 잠깐 웃다가 상호가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는 만큼 환자를 살리잖아? 그래서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야. 무시 받기도 싫고, 실수하기도 싫어서.”

상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이 들었다. 그 영향으로 소방에 임용되고, 시간을 쪼개 대학원을 다니기로 했다. 상호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다. 상호가 그토록 소방관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상호 아버지는 3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노련한 소방관이었다. 몇 년 전 정년 퇴직을 했다고 들었다. 늘 동기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대학을 졸업 후 응급구조학과 특별채용으로 다른 동기들 보다 빠르게 소방에 임용되어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력을 쌓고 합격하여 임용되어 상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상호보다 3년 정도 늦게 임용되었지만 정말 우연히도 같은 안전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친구와 같이 안전센터에 발령받은 것은 행운이라 생각한다.

안전센터에 구급 출동 사이렌이 크게 울린다. 119상황실에서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교통

사고를 당해 센터로 출동지령을 내렸다. 이상하게 무언가 모르는 불안감이 나를 휘감는다. 나는 구급조끼의 지퍼를 올리며 차고로 빠르게 뛰어가다 유난히 그날따라 미끄러웠던 바닥을 밟고 넘어졌다. 뒤따라오던 장은수 반장님이 나를 보고 외쳤다.

“괜찮아?”

장은수 반장님이 나를 부축하고 바로 구급차 앞 조수석에 탑승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급조끼의 지퍼 부분이 터져 제대로 잠기지 않는다.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운전 중인 이정호 반장님에게 하소연 하 듯 얘기했다.

“오늘 뭔가 잘 안되네요. 비는 엄청 쏟아지고 방금 넘어져서 지퍼 고장 나고.”

이정호 반장님은 가볍게 웃으며 농담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날도 있지 뭐 어찌 맨날 좋은 일만 있냐”

구급차는 빠르게 현장으로 달렸다. 유난히 구급차가 심하게 흔들린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는 아슬하게 도로에 멈춰서 있다. 주변의 구경꾼들로 인해 환자가 보이지 않는다. 구급차에서 장비를 챙겨 내리는 순간 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구급차에서 먼저 내린 이정호 반장님과 장은수 반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이정호 반장님이 크게 외쳤다.

“!”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현장을 보고 순간 눈을 의심했다. 몰아치는 빗방울과 바람을 부정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고 믿었다. 거센 빗방울이 마스크를 적혔다. 힘없이 누워있는 상호는 굵게 내리는 빗방울을 맞고 있었다. 그 순간 이정호 반장님의 거센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민준아 뭐해 정신 차려!”

장은수 반장님의 얼굴에 놀란 표정을 하더니 장비를 챙겨 급하게 환자 평가를 실시한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정호 반장님은 숨을 크게 내뿜고 처치를 보조했다. 현장의 시간은 단 몇 분이 흘렀지만, 나는 그 시간을 체감하지 못했다.

“이송하자.”

“제발 조금만 더 버티라”

“반장님 조금만 더 빠르게..”

힘차게 달리던 구급차는 결국 이승 앞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쓰러졌다. 더 이상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희미하게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는 들었다.

“구급차가 전복됐어요!! 누가 신고 좀 해봐요!!”

..

“식사하러 가지?”

대장님의 말씀에 대원들이 일어나 지하 식당 계단으로 내려간다.

“다들 식사하러 갑시다”

누군가 나의 어깨를 툭 하고 건드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밥 먹으러 가자”

생각하기 싫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생각해서 그런지 온몸이 쭈서 일어나기 전 크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났다. 여전히 창문 밖에는 전쟁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나는 그런 창문 밖을 잠깐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점심을 먹고 올라오자마자 구급 출동이 있었다. 점심을 먹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출동 사이렌이 두 컷가에 마구 울린다. 사이렌이 울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이 울린 후 대장님은 크게 외쳤다.

“비 많이 온다. 조심해라”

부디 오늘만큼은 교통사고가 없기를 기도했는데 신은 그런 나를 시험하는 듯 교통사고 현장에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숨을 깊게 마시고 뺐었다. 그리고 눈을 질끔 깊게 감았다가 떴다. 출동지령을 받아 구급차로 탑승했고 구급차는 미끄러운 빗길을 힘차게 달렸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저승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전 이승으로 당겨오는 소리임이 분명했다.

“아 맞다.”

급하게 출동한다고 깜빡하고 약을 챙겨 먹지 못한 것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문득 떠올른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우비를 쓴 경찰관이 보였다. 구급차를 내리자 엄청난 폭우가 우리를 반가워하듯이 마주한다.

“날씨 참....”

나는 하늘을 원망하며 환자에게 다가갔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환자분 저는 119안전센터 구급대 1급 응급구조사 김민준입니다.”

현장의 환자는 의식이 분명했고, 가벼운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신속하게 환자평가를 한다. 아마 가벼운 부상일 수 있지만, 자세한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대형 화물 트럭이 빗길을 뚫고 우리 눈앞을 빠르게 지나간다. 순간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며 눈앞이 멍해진다.

“김민준 반장님 괜찮으세요?”

김현수 대원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잘 모르겠다. 호흡을 가다듬고, 눈앞에 김현수 대원을 바라보며 얘기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는 않네요”

지도 의사와 통화하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안전센터로 복귀하는 구급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센터로 돌아가는 동안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구급차 창문을 보았다. 구급차의 창문은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웬지 낯설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슬픔이 조금 더 몰려왔다. 도로 위 신호등은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붉은 신호만 눈에 보인다. 그런 나를 힐끔 지켜봤던 김현수 대원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이야기했다.

“저기 반장님 오늘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했었던 말이다. 창문 밖을 보며 그날의 많은 복잡한 기억이 스쳤다.

“네 오늘입니다.”

슬프게 창문 밖을 바라보는 나의 표정을 보고 이상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구급차의 앞 와이퍼가 거세게 빗물을 몰아낸다. 하늘은 여전히 검정 물감을 칠한 듯 어둡고 캄캄하다. 안전센터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안전센터로 복귀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약을 먹어야 하나?”

늦었지만 약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자리에 앉는다. 그때 멀리서 이정호 반장님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캔커피 두 개를 꺼내 다가왔다.

이정호 반장님은 한 달 전 복직했다. 나와 같이 작년 구급차 전복사고에 현장에 있었던 분이다. 당시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무사히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트라우마로 인하여 차량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신다. 그래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들었다. 운전대만 잡으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현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한다. 이정호 반장님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아 오늘 가니?”

이정호 반장님은 나에게 얼음과 같이 차가운 캔커피를 하나 건네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캔커피를 건네받으며 반장님의 얼굴을 봤다. 이정호 반장님 눈동자는 센터 창문 밖 내리는 빗방울의 모습과 같았다.

“아직..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상 위 모니터에 비친 나의 얼굴에도 반장님과 같은 얼굴이었다. 반장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망설였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풀지 못한 숙제로 내 마음에 남아 있다. 그것은 아마 평생을 내 머릿속 안에 유성처럼 맴돌아 괴롭게 하는 것 죄책감 현장에서 동료, 친구를 살리지 못한 무거운 짐, 나를 스스로 묶어 구속하고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좋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나에게 반장님께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다.

“민준아 너도 같이 오기를 상호도 원할 거야”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참으려 했었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가르고 흘러내린다. 눈물은 떨어져 주황색 기동복을 적신다. 주변에 있었던 대원들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곗바늘 초침 소리가 센터를 감싼다.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해 줘.”

아무 말이 없는 나를 보고 잠깐 서 있다가 뒤로 돌아서 자리로 돌아갔다.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흐르는 눈물을 닦을 때 다른 대원이 얘기했다.

“어? 비가 그쳤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다. 이른 아침부터 내렸던 폭우가 늦은 오후쯤에 그쳤다. 안전센터 밖의 땅은 내렸던 빗물로 흠뻑 젖었지만, 구름이 걷혀 밝은 태양이 노을빛을 이루고 있었다.

“이상하네.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했었는데.”

안전센터 창문 안으로 태양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을 몇 초 동안 쳐다보고 핸드폰의 사진 폴더를 들어가 상호와 같이 정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봤다. 그리고 대장님의 자리에 조심히 다가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대장님 오늘 같이 가겠습니다.”

대장님의 표정은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가자”

다른 주변의 대원들도 나를 보며 얘기했다. 이정호 반장님은 멀리서 나를 잠깐 보시더니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어.”

다른 대원들도 응원에 말을 건네줬다.

“상호도 기뻐할 거야”

“대장님 혹시 이번에는..”

대장님에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쯤 출동 사이렌이 울렸다. 평소와 다르게 사이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닌 경고하는 듯한 외침 같았다. 창밖의 노을을 잠깐 보고 마음을 잘 추스르고 대답했다.

“출동 다녀와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출동이니까 조심히 갔다 와”

대장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구급조끼를 착용하고 차고로 뛰어갔다. 우리보다 먼저 출발하는 구조 차량이 보인다. 구조 차량의 사이렌은 마치 슬프게 우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대장님은 안전센터 차고 옆에서 출동하는 구급차를 바라본다. 너무 흐린 창문 때문인지 가까이 있는 대장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복귀하고 구급차 점검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

..

..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밝은 노을을 지던 태양은 어느새 구름에 모습을 감췄고, 그쳤던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다. 구급대장은 안전센터의 창문 밖을 보며 얘기했다.
“또 비가 오네”

사극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불난 초가집 앞에 모여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엄마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정호야. 밖에 있었어? 아이고. 정호 아버지! 어서 나와요! 정호 집에 없어요. 어서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가 집에 있는 줄 알고 방금 네 아버지가 불난 집에 들어가셨어. 이를 어쩔 좋으니."

옆에 있던 한 아줌마가 나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셨다. 조선 시대 정도의 어느 한 날, 초가집인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고작 여덟 살 정도인 나는 이 상황에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영영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뭘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웅웅웅. 웅웅웅.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벌떡 깬다. 액정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적혀있다. 다행히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내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예. 엄마."

"정호야. 잤나? 깨워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죠. 오늘은 오후 근무이거든요."

"그래. 집에 반찬 없지? 주말에 반찬 들고 갈게."

"아직 반찬 좀 있어요."

"그걸 아직도 안 먹었어? 아이고, 음식 다 상했겠다. 이래서 빨리 장가를 가야 할 건데..."

"엄마. 그 얘기는 그만 해요. 전 작년 그 사건 이후로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민재는 안타깝지만 이제 너도 잘 살아야지. 네가 이러는 거 아마 민재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만 하세요. 저 출근 준비해야 해요."

"그래. 알았다. 주말에 언제 출근하니?"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끝나요."

"그럼 저녁때 갈게. 그때 보자. 오늘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네. 엄마. 쉬세요."

나는 4년 차 소방관이다.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해 단번에 합격했다. 한 번도 나의 선택에 후회한 적이 없었고 소방관이라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같은 소방서 동기이자 내 단짝 민재가 순직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민재는 소방학교 시절부터 함께 한 동갑내기 친구이다. 민재와 나는 같은 소방서로 발령받아 민재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다. 동갑인 데다가 성격도 참 잘 맞아서 단순한 동료가 아닌 가족처럼 지냈다. 우리는 사고현장에서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아무리 무서운 불덩이도, 붕괴현장이라도 함께라면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멋지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냈다. 작년 이맘때 즈음에도 민재와 나는 재래시장 화재현장에 출동했다. 다행히 초기진압에 성공하고 내부를 확인하러 민재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뒤따라갔다. 잠시 뒤, 갑자기 민재의 머리 위로 건물이 무너져내리고, 민재가 매몰되었다. 빨리 민재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에 맨손으로 흙더미와 무너진 조각들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처참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민재의 장례식 날, 오열하는 제수씨와 아빠의 영정사진이 왜 저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둘째가 딸을 보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나에게 자부심 넘치고 멋진 일이지만, 사랑하는 나의 여자와 아이에게는 큰 시련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후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었다. 잊히지 않는 민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소방서에 출근했다.

"정호. 왔나?"

"네. 팀장님."

"그래. 오늘도 무사히 잘 퇴근하자."

소방서에는 이미 출근한 팀장님과 몇몇 동료 대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항상 그래왔듯 오늘도 탕비실을 먼저 갔다. 탕비실은 커피 애호가였던 민재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다. 웬지 이곳에 오면 민재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만 같다.

"민재가 커피를 좋아했었지."

"팀장님. 커피 한잔 드릴까요?"

"응. 고맙네. 벌써 일 년이나 지났네. 민재가 간지가..."

"그러게요. 참 미안하네요. 친한 친구였는데."

"자네가 뭐가 미안해. 팀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한 내 탓이지. 어휴..."

잠시 무거운 적막이 흐른다.

"나 보고서 마무리 지을 것이 있어서 먼저 나가네."

팀장님은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지 30년이나 된 베테랑 대원이다. 사고 전까지만 해도 소방서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셨다. 항상 호탕하게 웃으시며 모든 소방대원의 든든한 맏형이 되어주셨다. 그러나 민재의 장례식 이후로는 팀장님의 밝은 미소를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다 괜찮은 척하며 여전히 출근하고 출동했지만 사실 그 누구도 괜찮지 않았다.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들 출근하자마자 탕비실을 들러 민재를 그리워했다. 함께 한 동료가 갑자기 세상에 없다는 것은 새내기 소방관이든 베테랑 소방관이든 견디기 힘든

참 슬픈 일이다.

출동 벨이 울린다. 소방서 근처의 한 공장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빨리 화재현장에 가야 하는데 퇴근길인 도로는 꽉 막혀 달릴 수가 없다. 긴급상황이니 길을 터달라고 해도 양보하는 시민이 극소수이다. 어찌어찌해서 힘들게 공장에 도착해보니 자재를 쌓아놓은 곳에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이 크게 나지 않았고, 공장 직원들의 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처로 금방 꺼졌다. 현장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 뒤로도 쉴 새 없이 출동 벨은 울리고, 좀처럼 열리지 않는 도로를 꾸역꾸역 가로질러 사고현장에 출동하고 복귀했다.

드디어 퇴근이다. 오늘따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잦았지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대충 씻고 집을 정리한 후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르륵 잠이 든다.

초가집에 불이 났다. 내가 사는 집이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집을 본다. 나는 그들의 앞에서 아빠를 애타게 부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목놓아 운다.

"저기 멸화군 (조선 시대 불을 끄는 소방관)과 급수비(물을 길고 잡역을 하던 관비)들이 온다!"

"비켜주세요. 불을 꺼야 합니다."

뒤를 보니 열댓 명의 사람들이 도끼와 쇠갈고리, 천이 끝에 걸린 긴 장대, 큰 물통 등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앞서 온 무리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장대 끝에 걸린 천에 물을 적셔 불길을 제압하고, 뒤따라온 한 무리는 도끼로 주변을 부수고, 또 다른 무리는 쇠갈고리로 지붕의 짚더미를 직접 치우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급수비들은 쉬지 않고 계속 물통에 물을 가득 싣고 왔다. 다행히 멸화군과 급수비들의 빠른 대처로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아이고.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정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한 멸화군이 잽싸게 자신의 몸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물에 적신 큰 천을 뒤집어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린다. 자세히 보니 멸화군이 쓰러진 아버지를 안고 나왔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영영."

"정호 아버지! 눈 좀 떠보소."

엄마와 나는 아버지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니 우선 근처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소. 내가 업고 가겠소."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를 업고 근처 의원까지 달렸다. 어머니와 나도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며 함께 달렸다.

"여기 사람 좀 봐주세요. 집에 불이 났소."

의원은 아버지의 몸을 살펴보고 맥을 짚더니 침을 놓았다.

"아마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이니 잠시 후에 깨어날 것이요."

엄마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소?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 집에 가보시오. 정호는 아저씨랑 있을까?"

나는 엄마도 다칠까 봐 두려웠다.

"엄마랑 같이 갈래요."

"정호가 놀랐나 봐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여기 아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만 두고 가기엔 저도 걱정스럽네요."

"편할 대로 하시오. 정호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깨면 내가 잘 모셔가겠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원을 나와 황급히 집을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불이 꺼져있었고, 동네 사람들과 멸화군이 정리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네요."

엄마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신 고마워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를 구한 멸화군이 다가온다.

"아이 아버지는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이 살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들어가 아버지를 구한 멸화군이 어릴 적 만화 속의 슈퍼 영웅 같아 보였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슈퍼 영웅 같아요."

"슈퍼 영웅? 그게 뭐니? 좋은 거니?"

"아. 지금 조선 시대였지. 엄청 멋지다고요. 아저씨가 조선 땅에서 최고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멸화군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띠띠띠떡. 띠띠띠떡.

알람 소리에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러나 너무 생생했다. 꿈속의 그 아이가 진짜 전생의 내 모습처럼 보였다.

"전생 따위가 어딴어~ 출근 준비나 해야겠다."

씻고 대충 집을 치운 후 소방서로 출근했다. 오늘도 탕비실을 들러 커피를 마시며 민재를

그리워하고 내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출동 벨이 울린다. 화재신고이다. 서둘러 소방차에 탔다. 불이 난 곳은 근처 떡집이었다. 불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욱한 연기에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아이 아빠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는 줄 알고 남편이 들어갔어요! 남편 좀 구해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엄마와 8살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울며 서 있었다. 겁에 질려 우는 아이를 보니 꿈속에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아이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이 너무 아프다. 꿈속의 멸화군처럼 아이의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겠다. 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바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매장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점점 더 연기가 앞을 가려 어둡고, 뜨거워진다. 빨리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만 한다. 더는 지체하면 위험하다. 어두운 연기 사이로 구석에 열린 문 하나가 보인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연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가족을 찾는 한 남성이 보였다. 어서 달려가 보조산소통을 씌웠다. 부축해서 나가려는데 나를 붙잡았다.

"아들과 아내를 찾아주세요."

본인의 정신이 희미한 와중에도 다급한 목소리로 가족을 찾고 있었다.

"가족들 다 밖에 있어요. 어서 나갑시다."

우리는 어둡고 매캐한 연기를 뚫고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는 밖에서 자신을 기다린 아이와 엄마를 보며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과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둘러 화재를 진압하고 어느 정도 진정된 가족들 곁으로 갔다. 가족들의 얼굴을 찬찬히 보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꿈에서 아버지를 구한 멸화군의 얼굴과 아이 아버지의 얼굴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았다.

"아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멸화군, 아니 아이의 아버지는 나에게 허리를 굽혀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재현장을 마무리하고 소방서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장비들을 점검하고 사무실에 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다. 근무일지를 쓰다 보니 연신 고마워하던 아이의 아버지 얼굴과 꿈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던 멸화군과 자꾸 얼굴이 겹친다. 정말 아이의 아버지를 전생의 그 언젠가 만난 듯하다.

"진짜 전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뭐야."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본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워낙 조용해서 다들 내 목소리가 들렸나 보다.

"정호, 무슨 일 있어? 요새 피곤해 보이네."

"아닙니다. 요새 그냥 자꾸 꿈을 꾴서요. 별거 아니에요."

"몸 관리 잘해~ 튼튼해야 소방관 한다~ 피곤해도 운동 꼭 하고!"

"네! 알겠습니다!"

민재의 사고 이후로 팀장님은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신다. 속 모르는 다른 부서 사람들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지만 우리 팀원들은 그 말이 더 사고로 그 누구도 잃지 말자는 팀장님의 간절한 부탁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팀장님과 함께 틈틈이 운동한다.

화재사건 후에도 어김없이 출동 벨은 울렸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을 구하고, 벌집도 제거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양보도 잘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해주셔서 뿌듯하다. 드디어 퇴근 한 시간 전이다. 부디 한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역시나 출동 벨은 또 울렸다. 구급차를 타고 전달받은 사고현장에 도착해보니, 민재네 집이었다. 집 앞에서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제수씨나 아이에게 큰일이 생겼나 싶어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119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색이 된 제수씨의 얼굴이 보인다.

"정호씨. 안녕하세요. 되도록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딸 손목이 운동기구에 끼었어요. 도무지 저 혼자 해결이 안 돼서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딘가요?"

제수씨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자전거 운동기구의 페달 부분에 아이의 손목이 딱 끼어 새파래져 있었다. 손목은 많이 부어있었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민재의 딸은 온몸으로 자신의 아픔을 토해냈다. 바로 도구를 가져와 운동기구의 틈을 벌려 손목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살살 만져보니 골절인 것 같지는 않았다. 천만다행이다.

"뼈가 부러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시죠."

제수씨는 서둘러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에게 어린 아기가 운동기구에 손목이 끼었으니 바로 검사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려는데 나도, 함께 출동한 동료들도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볼까? 민재네 식구들인데 걱정이네."

"그래요. 형님. 저도 걱정됐어요. 아기 과자 같은 거라도 사서 가요."

우리는 아기가 먹을 만한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민재의 딸은 손목에 깁스하고 응급실 침대에 자고 있었고 제수씨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제수씨. 걱정돼서 다시 왔습니다. 검사는 다 한 건가요?"

"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깁스를 일주일 정도 해야 한대요. 지금은 약 처방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 그리고 이

거 아기가 먹을 과자랑 음료수예요."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바쁘실 텐데 마음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 명함입니다.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제가 민재에게 빚진 게 많아서 그래요."

제수씨는 내 명함을 받으며 눈물을 흘린다. 나 역시 민재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재가 너무 보고 싶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기 깰 수도 있으니 나오지 마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는 차 앞은 우리들의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차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일 년이나 지났는데 민재만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속 한편이 아려온다. 억지로 잊으려 했던 민재의 참혹한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민재의 사고 이후로 한동안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당분간 휴직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방관 일로 다들 바쁘데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지도 못했다. 그저 슬픔과 아픔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애써 꼭 누르고 괜찮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드디어 퇴근이다.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나왔다. 캔맥주와 간단한 안줏거리를 사서 집에 왔다. 식탁에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작은 액자를 놓고 캔맥주를 벌컥 들이마신다. 웃고 있는 민재의 얼굴이 오늘따라 참 알밋다.

"모자란 놈. 이 나쁜 놈아. 가정도 있는 새끼가 위험한 화재현장에 왜 먼저 들어가. 아기랑 제수씨는 어찌라고. 인마. 제수씨 우는 거 너도 하늘에서 봤지?"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재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다.

"너 아기 많이 컸더라. 너 얼굴을 쪽 빼담았어. 넌 참 못생겼는데 다행히 너 딸은 참 이쁘더라. 하늘에서는 꼭 그렇게 웃고만 있어. 알겠냐? 제수씨랑 아기는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이 나쁜 놈아."

대답도 없는 민재를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다.

"정호야~ 뭐하냐~ 나와서 엄마 좀 도와줘~"

엄마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창호지 문 사이로 엄마의 실루엣이 보인다. 밖에선 사람들의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엄마. 다 누구예요?"

"여태 잤니? 저번에 우리 집 불났을 때 도와주셔서 오늘 음식 대접한다고 계속 얘기했잖니."

동네 어른들과 그때 불 끄러 와준 멀화군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들고 계신다.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어서 저기 멸화군 아저씨들한테 술이랑 음식 좀 갖다 드리고 하렴."

엄마의 성화에 부엌에서 술과 음식을 들고 아버지를 구해준 멸화군 아저씨에게 갔다. 또 다시 봐도 아까 내가 구한 아이의 아버지 같다.

"꼬마야. 이거 더 주는 거니?"

"네. 아저씨."

"고맙다. 꼬마야. 그리고 그때 슈퍼 영웅이라고 해줘서 고맙다."

"슈퍼 영웅이 뭔데?"

옆에 앉은 또 다른 멸화군 아저씨가 말했다. 그때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 아저씨는 민재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신기하다.

"조선 최고로 멋진 사내라는 뜻이래. 요새 아이들은 최고라는 말을 슈퍼 영웅이라고 하나 봐."

"이야~ 엄청 좋은 말이네. 꼬마야. 너도 밥 많이 먹고 씩씩하게 커서 애처럼 용맹하고 멋진 사내가 되어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말이다."

"결혼이요?"

"그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내 가정도 꾸리고 살아야 진짜 용맹하고 멋진 사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얼굴을 보니 야무지게 생기고 어깨도 딱 벌어진 것이 너는 훗날 조선의 최고 멋진 슈퍼 영웅이 될 것이야.~"

민재와 아이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두 멸화군은 어린 나를 보며 킁킁 웃었다. 아저씨들의 웃음을 보니 나도 참 행복했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기분이 좋다. 그동안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일어나 샤워를 하는데 마지막에 민재를 닮은 멸화군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살아야 용맹하고 멋진 사내가 된다는 말이 귀에 자꾸 맴돌았다. 꼭 민재가 나에게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라고 하는 말 같다. 꿈속의 민재를 닮은 멸화군의 말을 곱씹으며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호 몸 상태가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나?"

씩씩하게 출근한 나를 보며 팀장님이 활짝 웃어 보이신다.

"아뇨. 그냥 좋은 꿈을 꾸세요."

"다행이네. 요새 표정이 어두워서 걱정했는데. 오늘도 무사히 잘 퇴근하자!"

"네!"

"씩씩해서 보기 좋구먼!"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밖에 익숙한 가족이 보인다. 멸화군 닮은 아버지와 그 가

족들이다.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들어오신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소방관님이 도와주셔서 다치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드실 피자
와 치킨 좀 사 왔어요. 드세요."

"이런 것까지 사 오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걸로는 부족하죠.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들인데... 그런데 소방관님 혹시 우
리가 언제 봤던 적이 있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도 느꼈는데 웬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알던 사람 같죠. 혹시 저희
떡집에 오셨을까요?"

"글쎄요. 제가 떡 사 먹으러 가지는 않아서... 그런데 저도 아버지 처음 뵈 순간 놀랐어
요. 누군가와 너무 닮아서요."

"거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관님이 조금만 더 늦게 오셨더라
면 저 진짜 다시는 우리 가족을 못 볼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뿐인데요. 몸도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
어오셔서 음료수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희도 일이 있어서요."

옆에서 가만히 있던 아이가 나에게 편지 하나를 건넨다.

"아저씨. 저희 아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 썼어요."

"이야~ 아저씨가 손편지도 받고 너무 좋은데. 고맙다. 꼬마야!"

"네!"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우리는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아이가 건넨 편지를 읽었다.

슈퍼 영웅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셋별초등학교 2학년 1반 정유태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아빠가 다칠 뻔했을 때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멋진 슈퍼 영웅
같이 멋졌어요. 저도 앞으로 아저씨처럼 멋진 어른이 돼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겠어
요. 나의 슈퍼 영웅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책상에 앉아 연필을 꼭 잡고 땀땀한 글씨로 한자씩 써 내려갔을 아이를 생각하니 웃
음이 났다.

"이야~ 아이가 정호 형님한테 슈퍼 영웅이라고 하네요~ 형님 좋으시겠습니다."

"슈퍼 영웅은 아니지만, 기분은 참 좋네."

오랜만에 우리 사무실에 활기가 넘친다. 기분이 좋다.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내고 내 자리에 앉았다.

슈퍼 영웅이라는 단어를 보니 꿈에서 본 멸화군과 급수비들이 생각난다. 그들은 도끼와 쇠갈고리, 장대에 걸린 천 조각, 물통이라는 작고 하찮은 도구로 영화 속 슈퍼 영웅처럼 불을 끄고 아버지를 구했다. 나 역시 멸화군처럼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는 소방관이지만 나는 그들에 비하면 한없이 나약하다. 친한 동료의 죽음에 많은 시간 아파하고, 솔직히 화재현장은 피할 수 있다면 꼭 피하고 싶다. 아직도 현장에 가면 내 앞에서 죽은 민재가 생각나고, 나 역시 그리될까 봐 무섭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구조에 실패하면 유가족들이 보낼 따가운 시선이 두렵고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멸화군과 급수비들이 작은 도구로도 다 함께 힘을 모아 큰불을 끈 것처럼, 나도 옆자리에 있는 소방관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멋진 슈퍼 영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비 슈퍼 영웅들을 호출하는 출동 벨은 울린다. 아직도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사고현장을 역행해서 가는 길은 두렵지만,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고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대다수 시민이 있기에 힘을 낸다.

진짜 슈퍼 영웅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달릴 것이다. 그곳이 멸화군이 달려갔던 뜨거운 불길 속이라도 말이다.

커다란 차가 그 크기와 어울리지 않는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렸다. 경고하듯 부르짖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도로의 차들은 빠르게 길을 내어주고 있었고, 차들의 움직임에 예상한 듯이 차는 더욱더 속력을 내며 스치듯 지나갔다. 그 차의 색칠된 새빨간 색깔은 차의 속력을 못 따라가듯이 차의 궤적을 훑으며 늘어지는 것만 같이 보였다.

윤상은 소방차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사이렌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따라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목직하다 못해 둔탁한 소방차의 덜컹거림이 유독 심한 듯한 느낌은 실제상황이라는 압박감이 만들어낸 것이리라. 긴장을 줄이려는 듯 윤상은 끊임없이 소방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막연하게 보람찬 일을 택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체력에도 자신이 있었다. 채용시험을 통과하고 소방학교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여름이 겨울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배웠고, 어지간한 것들은 확실하게 배우고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료 후 받은 한 개의 육각수 문양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직하고 자랑스러운 듯했다. 하지만 실제상황에 이르자, 그동안 배운 것들이 너무나 짧은 것처럼 느껴졌다.

시험을 보기 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윤상은 자신이 이 차에 탈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다. 화재 현장에 달려가는 선착대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에, 더욱더 윤상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불안함과 무거움을 떨쳐 내려는 듯이, 윤상은 차에 탄 인원을 결눈질로 살폈다. 다들 익숙한 듯 소방차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 윤상의 눈에 들어왔다. 반장이었다.

반장인 동혁은 윤상 자신보다 두 계급은 위였다. 계급의 문양은 고작 두 개 더 많은 것에 그치지만, 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관록은 윤상의 것을 아득하게 뛰어넘었다. 단순히 힘이 더 강하거나 일 처리를 잘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어떤 일에도 침착함을 잃는 법이 없었고, 절제된 감정 속에도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 과묵한 면모 자체에서 강인함이 느껴지는 듯한 사람이었다. 윤상은 자신이 혼자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없이 되뇌며, 소방차 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표정에 변화가 없는 반장을 본 뒤에는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소방차의 요동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다. 윤상은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던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았다. 소방차 한 대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골목길 한편에 차들이 뺨뺨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사고 현장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지만,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니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예상보다 조금 더 늦을 것 같았다. 선착대가 이렇다면 뒤에 올 차들도 예상보다 늦어지겠지. 제일 일찍 도착할 자신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질 것을 직감하며, 윤상은 산소통이 메어져 있는 어깨를 풀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도착했다.”

반장의 나지막한 음성에 윤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치켜들었다. 긴급한 상황에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이동하는 소방차의 앞쪽에, 도시의 빛이라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렁거리는 붉은 빛이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고 있었다.

* * *

“선착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반장이 무전기에 보고하며 소방차에서 내리자 나머지 인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소방차에서 내렸다. 윤상은 뒤늦게 내려 빠른 걸음으로 일행의 뒤를 따랐다.

윤상은 차에서 내리자 자신도 모르게 한 발을 뒤로 뺐다. 골목길에 있는 빨간 벽돌의 주택단지 중간에, 하나의 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불은 마치 타오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사람들을 굽어보는 것 같았다. 네 사람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커 보였다. 윤상은 이제야 자신이 싸우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너무 컸고, 강한 열기를 내뿜었으며, 너무나도 유독했다.

윤상은 자신이 받은 훈련이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음은 압도되었지만, 몸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소방차에 있는 수관을 뽑아내고 있었다. 내부 진입을 할 수도 있기에, 윤상은 긴 수관을 가져갔다. 반장은 이미 현장에서 차에 번진 불을 진화하며 확산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었다.

“제가 중간에 뿌리겠습니다!”

윤상이 중간 방화지점을 가리키며 반장에게 말했다. 반장은 윤상 쪽을 흘깃 보더니, 알았다고 대답했다. 곧 윤상은 자세를 잡고 수관에서 물을 뿜었고, 천천히 밖에서 보이는 화점과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쓰러뜨렸다. 한 차례 물을 뿜어내자 일렁이는 불길들은 보이지 않고, 한층 더 짙어진 검은 연기가 창문을 비집고 터져 나오고 있었다.

“다들 모여봐!”

번지는 불길을 어느 정도 잡은 반장이 팀원들을 불렀다. 윤상도 마침 하던 작업을 끝내고 반장에게 향했다.

“너희 둘은 주변 진압하고, 너는 나랑 진입한다.”

“예, 알겠습니다!”

윤상은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속에 있는 불안감을 감추고 싶은 듯이. 윤상과 반장은 집의 문 앞에 섰고, 나머지 인원들은 흩어져 잔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반장이 문고리를 잡고 측면에 섰고, 윤상은 열린 문틈 사이로 수관을 겨누고 물을 방출했다. 문틈에 자욱한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윤상과 반장은 집안으로 향했다.

막 들어온 집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윤상과 달리 반장은 익숙하게 창문 밖으로 물을 쏘며 연기를 내보냈다. 이윽고 연기가 빠져나가며 희미하게 앞이 보이기 시작

했다.

이따금 들리는 전기 스파크 소리와 함께 펼쳐진 풍경에 윤상은 아연실색했다. 단순히 구조물에 불이 붙는 것이 화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들. 즐거운 듯한 사진들이 걸려있는 액자와 가전기기들, 누가 두고 간듯한 다양한 집기들과 방금이라도 누군가가 사용한듯한 물건들. 모든 것이 검은 연기를 날리며 형체만 겨우 알아볼 만큼 녹아있었다. 어디에나 있을법한 물건들이 어디에도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일상 자체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새카맣게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의 잔혹한 이곳을 비추려는 듯 간헐적으로 일렁거렸다.

“뭐 하는 거야!”

성큼성큼 주위를 수색하던 반장이 뒤를 돌며 윤상에게 일갈했다. 얼어 있던 정신이 급격히 풀리며 움직임이 빨라졌다. 만약 요구조자가 이곳에 있다면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윤상의 조급함을 일깨웠다. 호흡기의 답답함과 소방헬멧을 뚫고 들어오는 열기를 느끼며, 윤상은 거실과 열린 방문들을 바쁘게 오갔다. 반장의 호출 명령이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꺼진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다시금 집 전체를 채우고 있었기에, 반장에게 간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 후였다. 반장은 휘청거리는 중년의 여성을 부축하고 호흡기를 물리고 있었다.

“눈 꼭 감으십시오.”

그 여성은 반장의 말에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맑은 공기를 필사적으로 들이키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윤상은 진입로를 다시금 정비하고 빠져나갈 준비를 하였다. 반장도 여성을 부축하고 밖으로 향하는 길에 발을 디뎠다. 집 밖으로 나간 윤상은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도 반가웠다.

“집에 누군가가 또 계십니까?”

밖으로 나와 여성의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을 확인한 반장은 현장을 살피며 그녀에게 물었다.

“아이와 어머니가 아직 집안에 계세요.”

정신이 돌아온 여성은 더듬더듬 반장에게 말했다. 반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향했고, 아까 받은 충격이 채 가지지 않은 윤상은 쭈뼛쭈뼛 반장의 뒤를 따랐다.

* * *

“1층은 부엌을 제외하고 모두 수색이 끝났습니다.”

“1층 수색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와.”

반장은 윤상의 말에 대답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집은 상당히 타들어 간 탓인지, 계단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상은 다시금 마음이 초조해졌다. 이곳은 더는 집이라 생각

할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불길이 치솟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밖으로 나갔을 때 차가운 바람이 가져다준 안심은 이곳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배가시켰다.

부엌문 앞에 선 윤상은 심호흡을 하며 주변을 살폈다.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문을 연다고 죽을 것 같지 않았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부엌도 역시 타오르고 있었지만, 큰불로 번질 것 같지는 않았다.

“계십니까!”

윤상은 요구조자가 대답하길 바라며 부엌 안을 찬찬히 수색해 나갔다. 사람의 기척도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윤상이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가스 밸브 쪽이 터져나가며 시퍼런 불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윤상은 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밸브의 존재를 잊은 것은 분명 자신의 실수였다. 하지만 윤상의 머릿속에는 이성적 판단을 내릴 힘이 없었다. 훈련하며 배운 현장에서의 주의사항들이 머릿속을 까맣게 채워졌다. 실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기억났고, 그 결과가 자기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숨이 막히고 눈동자가 떨려왔다. 그때, 천장 전체가 내려앉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다. 윤상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한껏 움츠렸다.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풀썩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한 차례에 진동이 멎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들려올 때쯤, 윤상은 고개를 들고 눈을 떴다. 그때 윤상의 눈에 비친 것은 부엌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윤상은 한순간 보이고 연기에 사라진 듯한 방문을 상기했지만, 주변의 열기와 대조되는 얼어붙은 몸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곧이어 반장의 호출 소리가 들려왔다. 윤상은 방문 쪽을 잠시 바라보고서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돌았다. 저기에 요구조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비열한 희망을 품고서, 윤상은 반장의 호출을 따라 1층 계단 앞으로 향했다.

* * *

반장의 호출을 받은 윤상이 층계참에 다다랐을 때, 반장은 한 노모를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계단은 불안하게 삐걱거렸다. 노모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가까스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고, 호흡도 불안정했다. 노모의 주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현장에서 마주칠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였다. 윤상은 내심 반장이 두 명의 요구조자를 모두 찾았기를 바라며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반장이 부축해서 데려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2층에 가보았지만 한 명밖에 없었어. 1층 수색은 모두 끝났나?”

반장은 지친듯한 얼굴로 윤상을 바라보았다. 모두 끝났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부엌에서 연기 속에 언뜻 보인 방문의 모습이 윤상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방은 부엌 깊은 곳에 있었다. 부엌은 위험지대임을 스스로 알았다. 처음부터 방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 윤상의 머리에서 자기합리화와 미약하게

남아있던 양심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1층 수색은...”

모두 끝났다고. 이제 이곳을 나가자는 말이 허끝에서 감돌았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요구조자들도, 새카맣게 타며 피어오르는 연기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현장의 위험 요소들 모두 다 윤상의 혀에서 단념이라는 말을 꺼내려고 겁박하는 것 같았다. 산소통도 방화복도 너무나도 무거웠다. 정신이 허물어질 것 같았다.

“아직 남은 곳이 있어?”

반장은 윤상의 기색을 눈치챈 듯 담담하게 물었다. 반장의 물음에 윤상의 어깨가 떨렸다.

“예, 아직 한 곳 있습니다.”

윤상은 참았던 숨을 한 번에 토해내듯 대답했다. 반장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산소통을 고쳐매고 노모를 윤상에게 인계하려는 듯했다. 윤상이 반장의 어깨를 건드린 건 그때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윤상은 떨리는 눈으로 반장을 응시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압박했었다, 처음부터 압도 당했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합리적인 무언가가 아닌 마음속 어떤 것이 윤상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듯했다. 반장도 윤상을 지긋이 응시하며 서 있었다.

“괜찮겠냐?”

반장의 말은 한결같이 무덤덤했다. 몇 자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듣자마자 윤상은 결심을 다졌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결연하진 않았다. 오히려 유약한 듯한 목소리였다. 마스크를 쓴 호흡 소리만 울려 퍼졌다.

“모시고 나갔다가, 다시 올게.”

반장은 그 말만 남긴 채 서둘러 노모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다. 윤상은 그 반대편으로 들어갔다. 반장의 괜찮겠냐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말은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강인함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손길을 건넬 수 있으려면 자신이 헤쳐나가야 한다. 이 생각만이 윤상의 머릿속에 차 있었다.

* * *

부엌 앞까지는 한달음에 도달했다. 방금 있었던 기억들이 다시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떨리고 무서웠지만, 뒤로 가면 안 된다는 마음만은 굳건했다. 윤상은 다시 부엌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곳곳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게 찾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다. 가스레인을 가까스로 지나가서, 윤상은 방문 앞에 도달했다. 문을 보며 위험 사항들을 점검하고 방의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은 아니었다. 집이 점점 틀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윤상은 방문의 힘을 주고 밀기 시작했다.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며 방안의 모습이 찬찬히 보이기 시작했다.

방안에는 자욱한 연기와 함께 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더욱 강해졌다. 큰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윤상은 쏠살같이 아이에게 달려갔다. 급하게 호흡기를 아이에게 물리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은 남아있었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이곳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다. 윤상은 아이를 안은 채로 급하게 뒤를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을 열 때 큰소리가 낮음은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럴 줄은 몰랐다. 문은 천장의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불이 이 집을 계속해서 태우는 한, 분명 방안은 삼시간 내로 붕괴할 것이 자명했다. 자신의 결말이 명확해져 왔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윤상은 아이를 품속에 끌어안은 채로 두 눈을 꼭 감았다. 자신의 육신이 천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뿐이었다. 눈을 감으니 연기의 매캐함과 화재의 열기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럴수록 품 안에 아이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진동이 점점 심해지다, 별안간 부서지는 소리가 강하게 들려왔다. 손에 힘은 더는 강하게 줄 수 없을 만큼이었다. 소리가 끝나고 예상한 충격이 윤상을 덮치지 않는 않았다. 윤상이 눈을 떴을 때, 화마를 떨치고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반장이었다. 반장은 아무 말도 없이 윤상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윤상의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바람이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긴장의 반작용이 윤상의 다리를 주저앉게 하였다. 반장은 윤상의 손을 놓고 아이를 구급대에게 인계하였다. 반장과 남은 소방관들이 남아있던 불을 남김없이 모두 껐다. 상황 종료였다.

* * *

열이 나간 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윤상은 재가 쌓인 몸을 씻어내고 있었다. 오늘 겪었던 일들을 복기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수많은 실수와 업에 대한 대가인 듯한 결과들. 꼬리를 무는 생각의 종착지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였다. 요구조자를 안고 나오는 소방관의 사진, 모두가 대피하는 때에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뒷모습. 그 장면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고려하지 못했었다. 되고 싶은 것이었지만 막상 되어야만 할 때는 그러지 못했다. 자신의 망설임과 나약함이 모두의 뒤에 칼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자괴감을 만든다. 이 집단에 필요 없는 존재인 듯한 느낌이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부추겼다. 몸에 재는 씻겨 내려갔지만, 어깨의 짐은 무거워졌다. 무익한 존재는 사라져야 한다고 양심조차도 다그치는 듯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최후의 최후에서, 아이를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였다. 갖가지 감정들이 혼재된 머리에 물을 끼얹고서, 윤상은 터덜터덜 밖으로 나갔다.

* * *

윤상은 터덜터덜 흡연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품 안에 있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바람이 얼굴에 불어왔다. 들이쉬었던 공기를 뱉어내자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나도 생경했다. 연기를 들이마실 때나 밝게 빛나는 조그만 불을 보며, 윤상은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던 그곳이 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그 일을 잊지 못하는 듯, 윤상은 자신의 눈이 조금씩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도무지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는 듯했다. 뒤돌아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무언가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다. 속앓이를 담아 연거푸 연기를 들이마시려는 찰나에 윤상은 자신의 옆쪽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윤상이 옆을 보자 그곳에 반장이 서 있었다. 딱히 달갑지 않은 만남이었다. 특히 오늘 일을 상기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윤상은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지만, 의자 가운데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다. 반장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원치 않았다. 반장은 우두커니 앉아 있는 윤상을 무심한 듯 쳐다보더니 다른 의자에 앉았다. 품속에 담배를 꺼내물고 예의 담배 끝을 보며 숨을 들이마셨다. 담배가 타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듯이. 윤상은 반장을 조심히 결눈질하며 자신이 말을 건넬 시기를 찾고 있었다. 자신의 실수와 비열함을 생각하며 입을 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오늘 수고 많았다.”

작은 침묵이 흐르고 반장이 윤상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건넸다.

“아닙니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같이 고생해서 뿌듯하기보다는 송구스런 마음이 앞섰기에, 윤상은 당치도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윤상도 반장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뒤로 별다른 말 없이 숨 내쉬는 소리만 주고받듯 들려왔다.

“불이 그렇게 사방에서 타는데도 무섭지 않으십니까?”

반장이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서려는 순간에 윤상은 반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이 되살아 난 듯,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반장은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하다, 이내 다시 자리를 잡고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윤상은 반장의 입이 열릴 때까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무서우냐?”

이번에는 반장도 윤상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했다. 윤상은 욕을 들어먹을 각오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 죽음도, 살이 타는 고통도. 그런 곳을 자진해서 들어가야 하는 사명감도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반장은 다시 담배를 물고서는 고개를 천천히 떨렸다.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나가는 듯했다. 이윽고 옅은 웃음인 듯, 회한인 듯한 복잡한 얼굴을 윤상의 앞에 내놓았다.

“나도.”

“예?”

윤상은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말문이 막히기 전에 벨으려는 듯이.

“나도 무섭다고.”

반장이 고개를 숙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반장의 얼굴은 화재 현장에 갇혀있던 요구조자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문을 부수며 달려오던 헬멧의 안쪽은 이렇구나. 윤상은 당혹스러운 와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반장은 천천히 일어나 상황실로 되돌아갔다. 윤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반장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당연한 감정이고, 익숙한 감정이었으니까.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영웅은 아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윤상은 자신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흡연실을 나서는 윤상의 눈은, 더는 떨리지 않았다.

안녕과 번영을 위한 불이 인명과 문명을 삼키는 악마가 될 때, 죽음의 공포에 질린 인간은 위험 속에 뛰어드는 영웅이 된다.

TV를 기웃거리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그때 그... 소방관 아니야?”

그때 그 소방관이라니? 우리 부부가 아는 소방관은 없었다.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아내의 시선을 쫓아 TV쪽을 쳐다봤다. 열어둔 베란다에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P시에서 일어난 물류저장창고 화재를 속보로 보도하고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바라본 상공에서는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가깝게 비춘 화면에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사일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몸을 움직여댔다.

사망자 13명, 부상자 37명, 실종자 6명. 실종자 중에 한 명은 소방관이었다. 여기저기 교차 편집된 화재 현장과는 달리 모니터 우측 하단에는 제복 입은 남자의 사진이 고정되어 유독 시선을 끌었다. 소방장 정인석, 34세. 아내가 말하는 ‘그때 그 소방관’은 아마 그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채 씹히지도 않은 음식물을 우물거리며 아내에게 되물었다.

“누구? 저 사람?”

“있잖아, 그때 계곡에서 구조됐을 때.”

비로소 그 사내가 생각났다. 비가 쏟아지고 물이 범람하던 계곡에서 그와 처음 만났던 일, 파르르 떨던 유빈이의 새파란 얼굴, 어리석고 무기력했던 가장의 부끄러운 민낯. 그때의 기억은 퐁퐁 싸두었던 흥한 상처처럼 숨기고 싶은 기억이었다.

*

8월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의 첫 주말 오전이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우리 가족은 P시와 인접한 유명 계곡으로 뒤늦게 피서를 떠났다. 아내의 성화와 아이들의 투정에 못 이겨 그저 주말을 활용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에 나는 회사 일에 정신이 팔려 주말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기였다.

우리 가족을 태운 SUV는 꼬불꼬불한 계곡 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계곡을 가로지르는 작은 교각을 지나갔고, 다시 계곡을 타고 올라가다가 처음에 봤던 것과 비슷한 교각을 지나쳤다. 계곡과 길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네 식구는 차를 주차한 다음 짐을 나눠 들고 좋은 자리를 찾아 걸었다. 발부리에 차이는 계곡 돌맹이들은 햇빛에 달구어져 제법 뜨끈거렸다. 한참을 헤매다 자리 잡은 곳은 계곡이 한눈에 보이는 평평한 반석 위였다. 그들이 시원하게 들고 나뭇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선정한 거였지만 자칫 폭우가 심하게 쏟아지면 쉽게 물이 불어나는 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그때는 그런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 아

니었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랬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일까? 텐트를 치는 와중에도 해결하지 못한 일거리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뚱뚱 떠다녔다.

“여보, 텐트 다 쳤으면 멍하게 있지 말고 애들이랑 좀 놀아줘.”

여기까지 와서도 잔소리냐고 아내에게 되려 따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수빈이와 유빈이는 아빠와 물놀이를 하는 어떤 남자 아이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쭈뼛쭈뼛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 아이들은 체형과 얼굴이 분간하기 힘든 것이 아무래도 쌍둥이 같았다. 쌍둥이는 자기네들을 꼭 닮은 아빠와 오늘이 마지막 여름인 것처럼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그들 부자의 물놀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려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물놀이에도 드라마가 있다고 할까. 다만 아빠가 쌍둥이와 놀아주는 건지 쌍둥이들이 아빠와 놀아주는 건지 헷갈렸다. 장난기 가득한 쌍둥이들의 얼굴은 꼭 그들의 아빠에게 유전된 것 같았다.

이에 질세라 나는 옷통을 벗어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수빈아, 유빈아! 우리 물속에 들어가자!”

나는 수빈이와 유빈이를 양쪽 허리에 끼고 물속으로 내달렸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발버둥 쳤다. 딸 수빈이는 아깝게 놓쳤지만 막내아들 유빈이를 그대로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물세례를 퍼부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렇게 한바탕 놀자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진작 이곳에 올걸, 하고 후회의 감정이 들었다. 쉬는 시간 톨툴이 우리 가족은 수박을 먹고, 인근 가게에서 닭백숙도 먹었다. 아이들은 이곳에 있는 내내 웃어댔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조차 얼굴에 웃음으로 번졌다. 그러던 사이 오전까지 내 머릿속을 괴롭히던 회사일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

땅거미가 지자 북적거리던 피서객들은 하나 둘씩 계곡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다. 나는 모기향과 침구류 등 취침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러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다. 계곡 맞은편 언덕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펜션들과 달리 계곡을 따라 땅을 물고 있는 텐트들은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침낭을 챙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쾌쾌한 담배 냄새가 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쌍둥이 아빠가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알은 척을 하며 하룻밤 묵고 가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씨익 웃으며 자기네들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고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기향 좀 빌려줄 수 없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여유분의 모기향을 건넸다. 쌍둥이 아빠는 그 특유의 녀석 좋은 미소를 짓고는 텐트 안에 소주가 있으니 좀 있다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랜턴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텐트를 향해 걷는 동안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 여유로움을 잠시 만끽했다. 맑은 공기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으로도 온몸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왜 더 빨리

이곳을 찾지 않았을까. 집을 떠나면 아내와 아이들만 좋아하고 나는 고생을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일까.

텐트와 가까워졌을 무렵 물방울 하나가 내 뺨 위로 떨어졌다. 계곡 쪽으로 랜턴을 비추었지만 그쪽에서 튼 것은 아닌 듯싶었다. 나는 물방울을 훑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이 한 개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텐트 안에서 아이들은 랜턴으로 얼굴을 비추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웃음이 이렇게 많았으나 싫을 정도로 아이들은 하루 종일 웃고 또 웃었다.

“수빈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있지? 내일 날씨 좀 확인해 봐.”

“왜? 내일 비 온대?”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말고 내 눈치를 살폈다. 아내는 핸드폰을 뒤척이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라고 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된 가운데 나는 차마 “집에 가야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평소 같았다면 가족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짐을 싸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웃는 얼굴이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깐 일단 텐트를 걷고 근처 펜션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

힘겹게 타협점을 제시했지만 지금 시각에 펜션에 빈자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아내가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정말 비가 올까? 내일 오전에 비 올 확률이 30%밖에 안 되잖아? 비가 온다고 해도 조금밖에 안 올 것 같고.”

30%라도 비가 올 확률은 있었다. 게다가 단순히 확률로 따지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이렇게 공기가 상쾌한데 무슨 비가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카랑카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 동정을 죄다 엿들었는지 소주병을 한 아름 든 쌍둥이 아빠가 텐트 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아내는 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표정으로 물었고 나는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보냈다. 으레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겠지, 하고 그가 텐트에 찾아오겠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아내는 쌍둥이 아빠를 반갑게 맞으며 얼른 자리 하나를 내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눈치였다. 쌍둥이 아빠는 품 안에 든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가 앉자 진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너희들 보드게임 좋아하니? 우리 애들이 같이 하자고 하더라.”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아내의 허락을 받은 뒤 텐트 밖을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아이들이 나가자 쌍둥이 아빠가 말했다.

“제가 장담하는데 비는 절대로 안 옵니다.”

“정말요?”

마치 귀인을 만난 것처럼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 식구가 왜 여기 남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계곡은 우리 식구가 매년 찾는 곳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군청에서 반드시 안내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걸 어디 조금이라도 들으셨나요?”

“아뇨. 못 들었어요.”

“당연히 못 들었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못 들은 게 아니라 군청에서 안내방송을 안 한 겁니다. 내일 비가 안 오니까 안내방송을 안 한 것이죠.”

쌍둥이 아빠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계곡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인근에 야영장과 펜션이 백 곳이 넘었는데도 군청이나 업체 측에서 안내방송이 하는 걸 듣지 못했다. 무엇보다 쌍둥이네 식구가 매년 이곳을 찾는다라는 말이 큰 신뢰감을 주었다.

변을 보고 뒤를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한 느낌도 들었지만 쌍둥이 아빠와 소주잔을 서너 잔 주고받다가 보니 이곳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술이 취하면서 나는 그가 2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쌍둥이들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이는 서른여섯 살로 나보다 두 살 어렸고 P시에서 나를 알아주는 캠핑점을 운영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걱정된 아내는 어느 순간 쌍둥이네 텐트로 갔고, 우리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술을 마셔댔다. 언제부턴지 그는 내게 형님이라는 존칭을 쓰고 있었다.

투두투두- 무언가 얇은 천장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에 눈이 뜨였다. 실내는 아직 어두웠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곳이 텐트 안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떻게 잠들었던 걸까.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술을 과하게 마신 탓인지 목이 말랐다. 생수통을 찾으려고 손을 더듬거리다가 천장을 때리는 그 소리가 빗방울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잠이 획 달아났다. 랜턴을 켜고 옆에 누워 있는 아내를 급하게 깨웠다.

“수빈이 엄마, 일어나. 비 와!”

아내가 눈을 비비며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자 나는 텐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바로 눈앞에서 폭우가 세차게 쏟아졌고 계곡물은 폭포수 소리를 내며 넘실거리고 있었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눈이 토끼 눈처럼 동그라졌다. 다행히 텐트가 위치한 바위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들이닥칠 기세였다.

우리 부부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내는 아이들을 흔들여 깨웠고, 나는 지갑과 차키 등 중요한 소지품들을 찾기 시작했다. 잠이 덜 깬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깜빡거렸다. 아내가 유빈이를 데리고 계곡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내가 멈춰 세웠다.

“텐트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벌써 계곡 물이 코앞까지 다다랐어.”

나는 산 쪽으로 위치한 텐트 문 지퍼를 열었다. 긴장을 한 탓인지 지퍼가 중간쯤 열리다가 맞물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급한 대로 좁은 구멍 사이로 아이들을 집어넣었다.

“우린 어떻게 나가려고...”

아내가 울상을 지었다. 나는 가위를 들고 텐트 문을 잘랐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내가 넘어가려고 할 때 막내 유빈이가 다시 텐트 안쪽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너 뭐하는 짓이야?”

“신발이 없어.”

유빈의 신발은 계곡 입구 쪽에 있었다. 아마 지금쯤 계곡 물에 휩쓸려 갔으리라.

“아빠가 새 걸로 사줄게. 일단 빨리 나가자!”

텐트 밖을 빠져나간 우리 가족은 텐트 줄이 묶인 나무 뒤편으로 올라갔다. 유빈이가 흙담에 발을 딛다가 미끄러져서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 했다.

한시름 놓았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 지대가 조금 높아졌을 뿐, 언제라도 우리가 있는 곳까지 계곡 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발부리에 차이던 돌맹이들과 어제 우리가 걷던 길은 이미 물이 잠겨서 보이지 않았다. 숲으로 이어진 뒤쪽 길은 절벽처럼 가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더 이상 무리였다. 빠져나갈 길은 고사하고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를 피할 방법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 신세였다.

여보, 저기! 하고 아내가 소리쳤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우리가족이 함께 잠을 자던 텐트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불어난 계곡물은 그냥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킬 뿐이었다. 아내가 갑자기 울컥, 하고 눈물을 쏟아냈고 아이들이 따라 울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껴안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대로 가족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날 그토록 맑고 잔잔했던 계곡물은 누런 흙탕물로 변해 마치 역정이라도 난 듯이 우리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정신없이 텐트를 빠져나오다 휴대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쉬웠다. 나는 흐트러지는 정신을 바로 잡기위해 내 뺨을 몇 차례 때렸다. 나까지 정신줄을 놓는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다. 나는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현재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곳에서 계곡을 건널 수도, 뒤쪽 산으로 피할 수도 없다면 계곡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떨까? 거친 계곡을 따라 그대로 걷다보면 산 쪽으로 이어진 완만한 샅길이 나타날 지도 몰랐다. 허나 여덟 살짜리 아들과 열 살 된 딸, 겁 많은 아내를 데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험한 계곡 길

을 이동하기란 무척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가파른 길목만 해도 발을 잘못 디디면 계곡 밑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앞선 생각을 아내에게 밝혔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 혼자라도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하고 돌아서려는데 아내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여보, 우리 두고 아무 데도 가지마.” 그 말이 어찌나 애처롭게 들리던지. 결국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했다.

날이 밝아지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계곡물은 살기를 띤 채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 무서운 속도로 흘러갔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넘실거리는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굽어진 길목을 보았다. 여전히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갈팔질팡하고 있을 때 오른쪽 길목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쌍둥이 아빠였다.

그는 태연하게 “형님, 무사하셨군요.” 하고 씨익 웃었다. 나는 반가움보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간밤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렇게 된 게 모두 그의 잘못된 것만 같았다. 비를 흠뻑 뒤집어 쓴 우리 아이들과 다르게 쌍둥이들은 번듯한 비옷차림이었다. 우리 가족을 깨울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배신감까지 들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어떻게... 우리 가족을 남겨두고 당신 가족들만 대피할 수가 있어!”

아내가 내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그는 말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주먹이라도 한방 날리고 싶었지만 헬썩한 얼굴로 공포에 질린 쌍둥이들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혹시 쌍둥이 아빠도 우리처럼 경황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우리 부부도 가족의安危만 생각했지 쌍둥이네까지 돌아볼 엄두를 못 냈다. 더구나 그는 홀몸이 아니던가... 이런 생각이 미치자 멱살을 잡았던 손에 서서히 힘이 풀렸다.

우리 텐트와 쌍둥이네의 텐트는 불과 10m도 안 떨어져 있었지만 계곡물이 불어나 길이 없어지고 급히 대피하는 바람에 각자의 텐트와 가까운 외각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굽어진 굴곡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족의安危를 몰랐었다.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쌍둥이네가 무사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이곳으로 온 이유를 물었다.

“119에 전화했더니 곧 구조대가 올 거니까 나무가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둘러보니 나무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글고 저쪽 사정도 여기보다 나뻗으면 나뻗지, 좋진 않습니다.

119에 신고했더니!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을 재촉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구조대가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유빈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유빈아, 괜찮아?”

“아빠... 추워!”

유빈이의 새파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창백한 얼굴과 새파란 입술. 덜덜 떠는 몸. 전형적인 저체온증 증상이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급히 유빈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수건을 짜서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냈다. 마른 옷이 없었지만 쌍둥이 아빠가 흔쾌히 자기의 비옷을 유빈에게 빌려주었다. 어서 빨리 유빈이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했다. 저체온증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쌍둥이 아빠의 말로는 십 분 만

에 구조대가 도착한다고 했지만 십 분이 마치 십 년이 흐르는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덜 덜 떠는 유빈이를 꼭 껴안기만 할 뿐, 나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아버지로서 내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구조대가 도착한 건 삼십 분이 훨씬 지난 뒤였다. 그들의 출현이 기쁘기보단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원망이 컸다.

소방관들은 우리를 발견한 뒤 확정기를 갖다 대고 뭐라 뭐라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운 계곡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고립된 인원이 몇 명인지 묻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손가락 일곱 개를 펴며 일곱 명이라고 외쳤다.

얼마 뒤 로프총이 발사되었다. 총구에서 빠져나온 탄은 큰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가 있는 나무 위로 날아와 가지에 걸렸다. 그런 장면을 우리는 난생 처음 보았기에 로프총이 발사된 후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다. 확정기를 든 다부진 소방관이 우리를 향해 또 뭐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쌍둥이 아빠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뒤에야,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로프총에서 발사된 탄에는 가는 실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걸 잡아당기라는 말이였다. 쌍둥이 아빠가 가까스로 나뭇가지에 걸린 탄을 낚아챘다. 소방관의 말처럼 탄 꼬트머리에는 희고 가는 선이 달려 있었다. 쌍둥이 아빠가 실을 잡아당기자 실과 연결된 로프가 꼬리를 타고 졸졸 딸려 왔다. 그는 소방관의 지시대로 로프 끝에 걸린 고리를 굵은

나무에다 감싼 뒤 다시 로프에 걸착했다. 확정기를 든 소방관이 우리를 향해 엄지를 번쩍 들었다. 이로써 우리가 할 일은 끝난 듯싶었다. 그러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장 터지는 줄도 모르고 소방관들은 로프를 팽팽하게 고정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했다. 로프를 견고한 나무에 동여매고서야 헬멧을 쓴 소방관이 로프를 타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건너오기 시작했다. 그가 계곡 중간쯤을 지났을 때 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그만 계곡물에 발이 빠지고 말았다. 나는 그제야 소방관들이 로프를 팽팽하게 만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슬아슬 하게 균형을 잡은 소방관은 곧 자세를 잡고 능숙한 동작으로 로프를 타더니 결국 우리가 있는 곳까지 다다랐다. 소방관이 무사히 안착하자 나는 그가 혹시 유빈이보다 쌍둥이들을 먼저 보낼까봐 조바심이 났다.

“우리 애가 아파요. 아마 저체온증인 거 같아요!”

소방관은 나와 유빈이를 힐끔 쳐다보고는 허리 밑에 매달고 온 로프 중 한 개를 첫 번째 로프가 고정된 나무 위에 통과해 걸착했다. 가까이서 본 소방관은 꽤 젊었다. 채 서른도 되지 않아 보였는데 까무잡잡한 피부와 짙은 눈썹이 특징이었다. 그는 맞은편 소방관들을 향해 잡아당기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무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맞은편 소방관들이 로프를 견고하게 잡아당기자 그제야 그가 우리 부자를 돌아봤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꼬마야, 어디 볼까?”

소방관은 유빈이의 몸 상태를 살폈다. 유빈이를 유심히 보던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일단 이 아이부터 건너보내야겠습니다.”

소방관은 유빈이에게 안전벨트를 입히고 끈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내 힘을 빌려 유빈이를 번쩍 들어 올린 뒤, 로프 위에 걸착시키고는 주렁주렁 달고 온 로프를 유빈이 허리에 걸었다. 이로써 유빈이가 구조될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그가 맞은편으로 손짓하자 맞은편 소방관들이 로프로 유빈이를 끌어당겼다. 우리 부부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유빈이가 줄을 타고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살기를 댄 급류 위에서 유빈이는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평소 믿지도 않았던 하느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내 기도가 통했는지 아까 소방관이 계곡을 건너 올 때처럼 유빈이의 발은 물에 닿지 않았고 무사히 계곡을 건너갔다.

우리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소방관은 다시 줄을 잡아당겨 안전벨트를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 다음은 쌍둥이들 차례였지만 수빈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이번엔...!”

“잠깐, 선생님. 계곡을 건너는 순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마치 내 이기적인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소방관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소방관은 안전벨트를 끌어당길 때마다 다음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었고, 그가 정해준 순서에 따라 우리는 차례차례 계곡을 건넜다.

아이들이 모두 구조되고 아내 차례가 되었을 때 잠시 주춤했던 빗줄기가 또다시 굽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눈빛은 내 마지막 모습을 담는 듯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 눈빛은 오랜 여운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내 걱정은 말고 애들 기다리니까 어서 건너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반대편에 다다르자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차게 내리는 비로 인해 계곡물은 더욱 불어났다. 흡사 텐트가 꺼내려갈 때처럼 무자비한 폭우였다. 흠뻑 젖은 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방관이 정한 다음 순서는 쌍둥이 아빠였다. 나는 아까처럼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있는 우리 아이들과는 달리 쌍둥이들은 아빠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너편에서 뵈요.”

쌍둥이 아빠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항상 여유롭던 그의 표정은 어느새 공포로 질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가 쌍둥이 때문에 여태껏 표정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유빈이를 위해 서슴없이 자신의 비웃을 내주었던 것과 에두르지 않고 유빈이가 먼저 구조되는 것을 찬성했던 그의 배려심이 뒤늦게 생각났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도 생각났다. 나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잘 건너가요.”

아내에게도 보이지 않은 눈물을 남자들 앞에서 보인 것 같아 잠시 머쓱했는데, 쏟아지는 비 때문인지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다. 쌍둥이 아빠는 무릎까지 물에 빠져 질질 끌려 가다시피 힘겹게 계곡을 건너갔다. 이제는 물이 범람하여 우리가 있는 곳까지 밀려왔다.

나와 소방관이 단둘이 남게 되자 비로소 그에게 시선이 갔다. 나보다

일곱 여덟 살 정도 어려보이는 젊은 소방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계곡물이 밀려와 무릎이 잠겼는데도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뒤늦은 숙취 때문인지 속에서 구역질이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토사물을 뱉어냈다. 그리고 로프를 끌어당기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괜찮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곡 맞은편에서 우리를 재촉하는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소방관조차 보이지 않았다. 소방관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 같았다. 이제 곧 선택받지 못한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계곡물이 들이닥치리라. 정신력이 바닥을 드러내자 나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 몸에 안전벨트가 채어진 뒤였다. 소방관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지막에 순서를 정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급류에 휩쓸릴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몸은 줄에 이끌리어 넘실거리는 계곡으로 향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계곡물은 어느새 첫 번째 로프가 고정된 나무 높이까지 밀려왔다. 나보다 홀로 남겨진 소방관이 더 걱정이 됐지만 그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그가 쌍둥이 아빠처럼 표정을 숨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윽고 나는 급류와 맞닥뜨렸다. 급류는 허리까지 물이 잠긴 이 나약한 인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꿈속에서의 움직임처럼 내 몸은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끌어당기고 끌어당겨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보다 추위였다. 언제쯤 축축한 옷을 집어던지고 계곡에서 빠져나가 따듯한 욕실에 몸을 담글까? 이런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긴급한 순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의 기억은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다. 내 스스로 기억을 지웠기 때문일까? 아님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찮은 기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다만 떠오르는 것은 무사히 계곡을 건넌을 때 나를 감쌌던

따듯한 담요의

촉감과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향긋한 커피 향기뿐이다. 계곡을 홀로 지키던 젊은 소방관 역시 무사히 그곳을 탈출했다. 야영객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던 군청 공무원은 처벌을 받았고,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던 일가족이 급류에 휩쓸렸다고 했다.

계곡에서 구조된 지 한 달이 지난 뒤 우리 부부는 신세를 졌던 소방서를 뒤늦게 찾았다. 구조대에 근무한다던 그 젊은 소방관을 찾았지만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근무 중인 소방관은 그가 비번이라고 알려주었다.

몇 주 뒤 다시 소방서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간 뒤였다. 나는 그제야 그 소방관의 이름이 “정인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물류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난 지 일주일만 지났다.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실종됐다고 소란을 떨던 뉴스와 각종 매체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들이 없었다. 나는 지방 신문까지 샅샅이 뒤져 실종자 명단에서 정인석 소방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는 DNA를 채취하여 유가족들의 DNA와 대조해 실종자들의 신원확인을 한다고 했다.

얼마 후 그의 장례식이 치러진다는 소식이 들렸다.

넓은 체육관에서 거창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그의 장례식은 여느 장례식과 다를 게 없었다. 평일 오전에 비까지 내려 오히려 다른 장례식장보다 조촐하게 느껴졌다. 장례식장에는 정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부부는 소방관의 사진이 있는 제단 앞에 섰다. 상복을 입은 그의 젊은 아내와 여섯 살 된 아들은 나란히 서서 제단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 그와의 재회를 이런 식으로 장식하고 싶지 않았다. 정인석 소방관은 서른을 갓 넘긴 젊은 아내와 6년 전 막내 유빈이보다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위급한 순간에서 소방관과 마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설사 그 소방관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까지 구해줬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

훗날 그 소방관을 기억할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어떤 특징인을 떠올리기보다, 그저 주황색 제복을 입은 이미지로, 단지 ‘그때 그 소방관’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인석’라는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할 줄만 알았다.

그때와 같은 재해와 재난이 아니었다면 그는 살아 있었을까? 아니, 소방관이 되지 않았더

라면 그는 더 오래 살았을까?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장례식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내 머릿속을 괴롭혔다.

나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살리고 순직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받아드리기에는 참으로 가혹한 운명이라고 여겨졌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하는 것조차 잠시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어 영웅으로 떠받쳐질 뿐,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까마득히 잊혀져버릴 것이 뻔하다. 나와 내 아내가 그랬듯이.

장대 같은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우리 부부는 우산을 접은 채 손을 맞잡고 걸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갠다. 가로수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거리에 행인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얼마 전까지 비가 내린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스피커의 지지직 소리에 눈이 떠졌다. 출동이다, 직감이 들자 화재출동, 화재출동 방송이 울려 퍼졌다. 우현은 재빠르게 이불을 걷어차고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방화복을 입으면서 지휘본부의 브리핑에 귀 기울였다. 화재 장소는 6시간 전에 출동해서 진압했던 오래된 정자였다. 일 년도 안 된 경력에서 같은 곳으로 재출동하긴 처음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선배들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차안을 매웠다. 팀장인 형욱의 눈치를 살폈다. 나지막이 무전을 주고받는 형욱의 표정에서도 아무런 정보를 읽어낼 수 없었다.

소방차량이 정자 근처로 줄줄이 진입했다. 우현도 펌프차에서 내렸다. 진압했었다는 게 거짓말처럼 정자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게 불 보듯 뻔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정자라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인명 구조팀의 사인이 떨어지자 화재진압팀이 바로 투입되었다.

형욱의 일사불란한 지휘에 불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현은 마스크 너머로 일렁이는 불을 끄면서도 형욱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좇았다. 화재진압은 나 하나 잘하는 것보다 팀워크가 중요해. 경포에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분주히 움직이던 우현에게 형욱이 한 말이었다.

큰 건 끝났고, 잔불만 정리하면 되겠다. 발화원이 안쪽에 있는 것 같아. 나랑 막내랑 들어가서 정리할 테니까, 나머지는 주변 마무리 해.

팀내 가장 경력이 많은 고참과 막내가 한 조를 이루는 게 관행이었다. 작업에 누가 될까 긴장이 되면서도 하나라도 더 배울 기회였다. 우현은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형욱의 뒤를 바짝 좇았다.

정자 내부는 연기로 가득했다. 우현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랜턴 불빛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보였다. 진압을 하려다가 형욱의 조언이 떠올랐다. 형욱을 쳐다봤다. 형욱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현아! 우현아!

쿵!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현은 경련을 일으키며 눈을 떴다. 눈동자를 굴려 상황을 살폈다. 화재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대원들은 문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이우현 뭐해? 출동해야지. 팀장 형욱의 호령에 우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집중해야 한다. 사수인 형욱이 늘 되풀이하는 말이었다. 사람 살리기도 전에 니가 죽을 거야?

방화복을 입으면서 우현은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형욱은 손사래를 쳤지만 맞선임 격인

규진이 매섭게 노려봤다. 오늘따라 정신을 못 차려? 우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되뇌었다.

뭘 꿈 꿔? 꾸꾸 얹더만. 형욱이 노여움 묻지 않은 목소리로 묻는다. 출동하느라 꿈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다. 그러나 컷가에 울리는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반사적으로 입 밖에 내려다 멈춘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 끄는 꿈이라도 꿔나보지. 한창 꿀 때잖소. 규진의 사수인 정문이 너스레를 떤다. 굳어 있는 우현을 힐끔 보더니 장난기를 담아 말을 잇는다. 그나저나 강문동 호랑이 형욱 형님이 이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야? 퇴직이 좋긴 좋나보요.

형욱이 씨익 웃는다. 지휘본부에서 상황 브리핑이 계속된다. 정문 덕에 풀어진 차내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오른다.

막내야, 우리 어디 간데? 무전이 잦아들자 형욱이 우현에게 묻는다. 침을 한 번 꿀각 삼키게 만드는 매서운 눈빛이었다. 우현은 들은 바를 요약해서 다시 브리핑한다. 21시 50분 신고 접수. 경포호 앞 정자에 화재. 목조건물이라 불이 쉽게 번지며, 도로와 상가 사이에 있어 진압이 시급합니다.

형욱이 다시 씨익 웃는다. 이를 캐치한 정문이 놓치지 않고, 아들 보는 것 같아 좋죠? 면박 아닌 면박을 준다. 실제로 임용된 지 일 년 채 되지 않은 우현과 형욱의 아들은 기껏해야 하나, 둘 차이 밖에 나질 않았다.

정자는 3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펜스로 둘러쳐져 있어 바로 진입이 어려웠다. 정자 옆에 새로 짓는 호텔 공사장을 통해 지휘차량과 소방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섰다. 정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다. 우현은 밤을 밝히는 불기둥을 보며 이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화재는 사십 분을 넘기지 않고 진압되었다. 정자 내부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밖으로 번지지 않은 탓에 주변 상가에 피해는 없었다. 이 정도면 애꿎게 불탄 소나무 한 그루도 이해해 주리라. 우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활활 타올랐던 불길이 잦아든 자리를 매캐한 연기가 가득 매웠다. 소방차의 붉은 등이 점멸하며 검게 탄 정자를 비췄다. 한껏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형욱과 우현의 새카매진 얼굴도 붉어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나랑 막내랑 주변 정리하고 좀 지켜보다가 갈 테니까, 규진이라고 정문이는 들어가. 형욱이 헬멧을 벗고 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팀장님, 막내하고 둘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서 씻고, 라면이나 한 그릇 먹어. 출동한다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가.

형욱의 고집을 잘 아는 정문이 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규진은 걱정이 가득했지만 차마 형욱에게겐 말하지 못하고 우현을 보며 말했다.

우현아, 팀장님 잘 보필해라. 퇴직이 네 소방관 경력만큼 밖에 안 남으셨지만 따르면서

바짝 배워.

예, 알겠습니다. 우현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 땀은 내뺏겨 치고 비장하게 대답했다. 이따 같이 라면이나 한 그릇 하게. 정문이 손을 흔들며 차에 타고, 규진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 주저하며 따라 탑승했다. 요란하게 출동해서 대단한 일을 한 뒤에 묵묵히 사라지는 게 우리들이구나. 화재 진압 후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잔열 때문인지, 우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일차로 정리를 끝낸 후 형욱이 정자 주변에 쳐진 펜스에 기대앉았다. 손짓으로 우현을 불렀다. 우현은 형욱이 있는 곳으로 가 섰다. 평소 과묵한 형욱이라 온 감각을 동원해 눈빛과 손짓의 의미를 파악해야 했다.

좀 앉아. 쉬어. 경포해변에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에 잘 듣진 못했지만 눈치껏 형욱 옆에 따라 앉았다. 편하게 쉬어라, 막내야. 그 또한 우리 일이야. 눈을 감고 있는 형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땀인지 재인지 모를 것이 얼굴 위를 스멀스멀 기는 듯했다. 손등으로 대강 얼굴을 긁어내곤 방화복의 앞섬을 풀어헤쳤다. 그제야 경포호와 경포해변에서 앞 다뒤편 불어대는 바람이 느껴졌다. 우현은 숨을 크게 내몰아 쉬곤 연기로 희뿌예진 밤하늘을 쳐다봤다. 제법 제 모습을 드러낸 신축호텔이 시야에 걸렸다. 고개를 돌려 일부가 불에 타 형태가 불분명해진 정자와 견주어 보았다.

새로 짓는 호텔 옆에 불타 사라지는 건물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어찌 알았는지 형욱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우리는 늘 사라지는 것과 마주하는 사람들이야. 우현은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호텔과 기둥이 불타 지붕이 간신히 매달린 정자를 다시금 올려다봤다.

그래서 우리를 거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나? 위험에 닥치면 위험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야. 어느새 눈을 뜬 형욱이 말을 이었다. 검댕이가 잔뜩 묻었지만 눈동자는 빛이 났다. 그 눈동자는 저 먼 곳을, 이제껏 걸어 온 소방관의 발자취를 뒤적이고 있는 듯했다.

팀장님,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까? 불을 화마라고 하지. 아주 지독하게 살아나서 주변을 삼켜버리거든. 죽어라 물을 뿌려도 득달같이 달려드는 불길을 보면 학을 떼. 그럴 땐 안 무서우십니까? 겁나. 겁나지. 잡아먹히는 동료들을 본 적이 있다면 불 앞에만 서도 도망치고 싶어. 그렇지만 누가 하겠어? 이게 내 일인데. 내 일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현은 형욱의 눈을 쳐다봤다. 형욱은 우현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어느 시점의 자신에게, 혹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동료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혹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방백처럼 고독한 읊조림일 수도 있었다. 우현은 자꾸만 가라앉는 공기를 전환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팀장님, 퇴직하시면 뭐하실 겁니까? 형욱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너는? 앞으로 뭐가 하고 싶어? 결혼은 했어? 아직입니다. 만나는 친구는 있고? 예, 내년에는 결혼을 할까 합니다. 왜 내년이야? 마음먹었으면 당장하지. 우현은 멋쩍게 웃었다. 지금은 일에 적응도 해야 하고, 돈도 좀 모이면 하려고요. 소방관 되겠다고 이 년을 고시원에 틀어박혀 준비했더니 모아놓은 돈이 없네요. 안 그래도 이 일한다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많은데, 결혼만큼은 안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형욱과 이렇게 길게 사담을 나누는 게 처음이라 단어를 신중히 골랐다.

면접 준비할 때가 떠올랐다. 현장에 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말하라는 질문이었다. 철저한 훈련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구조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잘도 말했다. 철저한 훈련은 밥 먹듯이 일상이 되었다. 동료애는 어렵사리 막 싹트고 있는 것 같았다.

퇴직하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이나 매일 뵙고 싶어. 적막을 뚫고 형욱이 입을 열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미뤄둔 게 너무 많아. 슬하게 시민들을 구하면서도 늙어가는 내 어머니는 정작 제대로 돌보지도 못 했네.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 이 일은 삼십 년을 해도 도통 적응되질 않아.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한 번 올라하는 재앙을,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그놈을 한껏 짊어지고 사니까 편할 리 없지. 익숙해질 수도 없고. 그래도 타인의 불행에 익숙해지는 거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 화마에게 집어삼켜질지언정 정신만은 뺏기지 말자고 몇 번을 다짐했나 몰라. 나도 늙었나, 말이 길어지네.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팀장님과 같은 조가 된 게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싱겁긴. 아, 그리고 모은 돈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나라님이 구제해야지. 월급 좀 올려달라고 인터넷 같은 데 올려 봐. 나도 나갈 때 한몫 챙겨야 아내님께 체면이 서지. 세월이 꽤인 형욱의 눈주름이 무지개 모양으로 졌다. 우현은 저도 모르게 따라 미소를 지었다.

형욱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섰다. 우현도 따라 일어서다 휘청거렸다. 이십 킬로그램이 넘는 방화복은 몇 달이 지나도 무겁게만 느껴졌다. 소방학교에서 들은 강연에서 방화복이 가볍게 느껴질 때는 퇴직 때뿐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 날이 요원하게만 느껴졌다. 앞서가는 형욱이 걸어 온 삼십 년의 세월은 그러지지조차 않았다. 내 경력만큼 근무일수가 남았다니, 우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펜스를 돌며 진압 현장을 다시 살폈다. 형욱의 설명에 의하면 경포 해변의 화려함에 기억 속에 잊힌 정자였다. 육십 년간이나 자리를 지켰음에도 문화재가 아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신축호텔이 지어지면서 오히려 자리를 내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정자였다. 그 정자는 지어지고 유지한 시간이 속절없을 만큼 빠르게 타올라 형태와 색을 잃었다. 이런 걸 보면 불이 집어삼킨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님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우현은 랜턴 불빛이 형욱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발쪽을 비추며 뒤를 쫓았다. 평소라면 말이 없는 형욱보다 더 말없이 뒤를 쫓았을 텐데, 오늘은 자꾸만 입이 근질거렸다. 이때가 아니면 더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꿈같게도 앞에 선 형욱이 먼저 입

을 열었다.

진짜로 불 끄는 꿈꿨어? 예? 아, 맞습니다. 정문이 녀석, 용하네. 무슨 꿈을 꿨길래 몸서리를 치면서 깨? 그게 좀 좋지 않은 꿈이라..... 대체 무슨 꿈인데 말을 못 해? 원래 꿈은 반대라잖아. 말해 봐. 팀장님하고 근무를 나갔는데..... 꿈에서도 나랑 나갔어? 벌써 악몽이네.

아, 아닙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죽어? 뭘 놀래. 그런 꿈 많이 꾀. 집 가는 길에 로또나 사.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우현아. 형욱이 획 돌아서자 랜턴 불빛이 우현의 얼굴을 비쳤다. 갑자기 쏟아진 불빛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불빛 너머로 형욱의 얼굴이 부서졌다. 꿈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이 일을 하다 보면 차라리 꿈이길 기도할 때가 많아. 도둑 취금을 받으며 부수고 들어간 집에 싸늘한 주검이 된 할머니를 봤을 때. 불을 다 끄고도 살리지 못한 사람들. 하물며 뜨겁게 죽어갔을 반려동물들까지. 꿈이 아니란 게 원통하지. 차라리 꿈이었고 깨서 다시 출동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상처를 핏듯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야. 차가 안 막혔더라면, 조금만 빨리 뛰어갔더라면, 다른 곳을 먼저 살폈더라면. 대상 없는 원망도 해 보다가 결국 내 탓을 하게 되지. 어떤 직업들은 일을 끝내면 가슴에 별 하나씩 다는데 우리는 별이 된 이들을 가슴 속에 하나씩 묻어두는 거야. 그들이 꿈에 찾아와.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울고, 원망하고. 그리고 눈을 뜨면.....

우현은 다시 등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 크기만큼 가슴이 뻥해져. 소방관이란 무엇일까, 이 직업을 택하기 전에 물었던 근원적인 질문을 되뇌게 되지.

멀리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밤을 태우며 제각기의 아쉬움을 날리고 있었다. 길 하나 건너의 불길과 날리는 재는 까마득히 모른 채. 우현은 부쩍 서늘해진 공기를 느끼며 형욱의 뒤를 묵묵히 쫓았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펜스에 등을 기댔다. 불은 완전히 사그라진 듯 했으나 형욱은 자리를 뜰 생각을 안 했다. 우현은 형욱의 옆을 지키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오늘은 말동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팀장님, 위험하다고 판단돼도 현장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꿈처럼?

우현은 에둘러 표현했으나 진의를 들켜 말문이 막혔다.

죽을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위험한 걸 알지만 가야하는 거지. 나는 종교는 없지만, 어느 소방관의 기도에 나온 대로 신의 뜻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되면 아내와 가족이나 돌보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막내야, 너는 어찌겠냐? 위험한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겠어?

우현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면접시험이었다면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소방관

의 사명이니 하면서. 불 앞에 서고 나니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무게의 질문이 아니었다. 합격통보를 받고 뿔 듯이 기뻐했던 부모님. 눈물까지 흘렸던 여자친구. 주마등처럼 스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목구멍을 막고 있는 건 두려움이였다.

뿔 그리 고민하냐? 우리 할 일 해야지. 내일 눈 떠보면 알게 될 거야.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형욱이 우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 형욱의 의미심장한 미소와 확고한 말투에 가우뿔했다. 그나저나 땀과 재로 범벅일 텐데. 우현은 형욱의 손이 쓸고 간 머리를 만지며 내일 눈을 뜨면 핸드워시 하나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우현아! 우현아! 불이 되살아났어. 가야 돼!

형욱의 외침에 눈이 번쩍 떠졌다. 새벽이 넘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있었다. 방화복을 재정비하고 형욱을 좇아 속보로 이동했다. 화마는 어디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 되살아나 정자 내부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한 번 타들어 간 목조는 화마의 먹잇감이 되어 더 빠르게 삼켜지고 있었다. 거세지는 불길을 지원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기에는 물살이 약했다. 형욱이 번지는 불길을 진압하다가 외쳤다.

우현아, 저 안에 발화물이 있나보다. 안으로 들어가자.

불길을 맞서고 서서히 정자 내부로 진입했다. 우현은 안구를 녹여버릴 듯한 불길을 목전에 두고도 수많은 생각이 스칠 수 있음에 놀랐다. 안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상가까지는 번지면 안 되는데. 지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소방관이 다 된 건가.

우현아, 괜찮을 거야. 안면보호 마스크 뒤로 형욱이 씨익 웃는 게 보였다. 형욱과 팀이 된 이래 본 가장 밝은 미소였다. 저 분처럼 늙고 싶다, 우현은 찰나에 그런 생각을 했다.

불씨가 잡혀가는 게 보였다. 우현은 지금이 꿈이 아니길 바랐다. 아직 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였다. 핸드워시도 사드려야 했다. 호스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우현아! 우현아!

형욱의 다급한 목소리. 잦아드는 불씨. 눈앞을 덮는 목재. 정자 지붕이 무너졌다. 우현은 생각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십팔 분 뒤, 구조대가 도착하고 형욱과 우현은 더미 속에서 꺼내졌다.

우현은 눈을 뜨자 형욱의 말뜻을 이해했다.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당 입구에서 형욱을 기다렸다. 형욱은 오십 분이 지나서야 헐레벌떡 뛰어왔다.

팀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영 제복은 어색해서 말이야. 주인공이신데 늦으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그 말투는 뭐야? 이제 한 계급 올랐다고 편해졌어? 여전히 막내입니다. 이

형욱 소방경님. 낮간지럽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불러라. 들어가시죠, 팀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우현이 강당의 문을 두 손으로 활짝 열었다. 빛이 쏟아져 나왔다. 문득 임용식을 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 때도 다들 이렇게 제복을 빼 입고 강당을 가득 매웠었지. 우현은 고개를 빼 동기들의 얼굴을 찾았다. 꼭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기들의 모습에서는 임용식 때의 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에이, 고개 좀 들지. 팀장님, 영 분위기가 어둡네요. 형욱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춤이라도 추라?

팀장님, 그래도 주인공이신데 앞으로 가지죠. 저기 규진 선배님이 강단에 서시네요. 더 가까이서 들으시죠. 자신을 미는 우현의 손길에 마지못해 형욱은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이렇게 멀끔한 사진이 있었던가. 형욱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다. 찍은 지 좀 되셨네요. 저는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진하고 차이가 없는데. 어쭙? 이 자식 봐라. 이제 호랑이가 좀 편해졌어? 형욱이 우현의 어깨를 툭 쳤다.

사랑하는 형욱 형님, 막내 우현아.....

아, 저새끼. 안 어울리게 울고 지랄이야. 규진이 말을 잊지 못하자 형욱이 괜히 큰소리를 냈다. 우현은 목이 시큰거리는 걸 억지로 침을 삼켜 넘겼다. 고개를 들어 강당 천장을 바라보고 괜히 조명 개수를 세었다.

우현아. 예, 팀장님. 수고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기도나 하자. 내 동료들은 무사하게 해 달라고. 내 가족들도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형욱의 눈주름이 무지개 모양으로 졌다. 우현도 형욱을 바라보고 해맑게 웃었다.

- 끝 -

1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현진은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많이 길었다. 전에는 잔디처럼 촘촘한 머리카락 밑으로 귀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운동부 소속 고등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치고 다니던 모습을 기억한다. 지금은 뒷목을 덮을 만큼 자라난 머리카락이 고무줄로 질끈 묶여 있다. 야구모자의 챙이 얼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중이었다. 눈부터 코까지 전부 그림자가 집어삼켜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았다.

무거워 보이는 짐을 하나 덜어 주려고 손을 뻗었다. 현진은 팔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다. 분명한 거절이었지만 억지로 캐리어 하나를 뺏어 들었다. 기분이 상한 듯 모자 아래의 입술이 꼭 다물렸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걷는 동안 아무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30인치짜리 회색 캐리어가 묵직하게 우리의 뒤를 쫓았다. 덜컹이며 캐리어가 문턱을 지나는 소리가 났다. 일 년 동안 지속되었던 현진의 호주 생활이 푹푹 눌러 담긴 소리였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현진은 창문에 관자놀이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런 현진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났다. 마치 파노라마 같았다. 초췌해진 얼굴 너머로 멀리 산기슭이 겹쳐 보였다. 한 달 전, 울먹이던 현진의 목소리가 다시 금 꺾가에서 맴돌았다.

— 나 한국 들어가도 소방관 시험 안 보려고…….

여느 저녁과 같았던 통화였다. 핸드폰 너머로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로 현진의 태도가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통화하며 울음을 터트리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찰나였다. 현진이 숨을 한번 삼키더니 씹어 뱉듯 말했다.

— 너는 좋지? 나보고 소방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전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국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게 전부였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현진을 몇 차례 만류했던 건 맞지만,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입술을 잘근 씹었다. 내 말이 현진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을까.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준 걸까. 머리가 지끈거렸다. 위가 온통 쓰렸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던 현진은, 호주에서 꼬박 사계절을 다 보냈다. 긴 시간이었다. 돈을 모으겠다는 목적보다도 어학을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소방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녀오면 내가 너보다 영어 잘 할 거야.”

떠나기 직전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내가 따로 챙겨줄 건 없었지만 빈손으로 보내기는 영 찝찝했다. 직전 달에 받은 과외비를 전부 털어 나름 괜찮은 가방을 하나 들려 보냈다. 공항까지 현진을 배웅 나온 사람은 나뿐이었다. 현진의 어머니는 그의 호주행을 끝까지 반대했다. 그 모자는 사사건건 싸웠다. 어머니는 현진의 꿈이 소방관인 것도, 현진이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군대를 다녀온 것도,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것도 전부 못마땅해 했다.

나도 삶을 대하는 현진의 태도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뭐라 말해도 안 들을 애라는 것은 알았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현진보다 고집이 센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왕 멀리 떠나는 길, 기분 좋게 보내주고 싶었다.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잘 해 보라고 말이다.

“잘 다녀 와. 밥 잘 챙겨 먹고.”

가볍게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다.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꼭 우리 엄마 같다.”

그렇게 말하는 얼굴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성인이 된 후로는 만나는 빈도가 뜸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일 년 동안 외국에 보낼 생각을 하니 어쩐지 외로운 기분까지 들었다. 우리의 인연은 길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친구가 되기로 점찍어진 사이였다.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들끼리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와 현진의 아버지는 소방학교 동기였다. 이후에 같은 서로 발령을 받았다. 태어났더니 같은 아파트에 친구가 있었다. 우리 집은 7층, 현진의 집은 13층이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부터 같이 어울려 놀았다.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실 때면 자연스럽게 현진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우리는 과자나 주스 따위를 나누어 먹었다. 오래도록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기억들이 있다. 나는 다 자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가끔 그 순간들을 떠올린다.

현진이 호주로 떠난 지 계절이 세 번 바뀌었던 즈음이었다. TV를 켜더니 속보가 흘러나왔다. 온통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 얘기뿐이었다. 털이 그을린 동물들이 소방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뉴스 화면은 검고 붉었다. 인간의 손을 벗어난 재앙을 목격했을 때 으레 느껴지는 공포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다른 나라에서 난 산불이 이토록 크게 다뤄지는 일은 흔치 않았다. 진압이 불가능한 수준의 화재라고 했다. 나는 굳은 상태로 TV를 응시하다 펄쩍 핸드폰을 들어 현진의 연락처를 찾았다.

현진은 무사했다. 산불이 난 곳은 현진의 거주지에서 꽤 떨어진 위치라고 했다. 곧이어 현진에게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검은색으로 뒤덮인 하늘의 모습이였다. 불의 영향은 받지 않을 만큼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하늘이 까맣게 변했다는 것이었다. 전부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거대한 화재인지 나는 차마 가늠할 수도 없었다.

산불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소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치솟는 불길 위로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며 물을 뿌렸다. 사람이 죽고, 집과 농장이 불타고, 실종자가 발생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이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이었다.

그 날 이후 현진은 조금씩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오히려 괜찮아 보였다. ‘조금 놀랐지만 나는 괜찮아. 무사해.’ 이것이 화재가 일어난 당일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현진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었다. 콧속으로 빨려 들어간 연기가 숨을 옥죄어 오듯이. 깊숙한 뱃속 어딘가에 그늘음이 생겨 버린 듯 했다.

— 내가,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지켜보는 것밖에 못 해.

매일 저녁의 통화에서 현진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현진은 눈물을 흘렸다. 무언가가 나의 친구를 잡아먹고 있었다. 나는 덜컥 현진을 잃을까 봐 두려워졌다. 덩달아 무력감을 느꼈다. 선불리 건넌 위로의 말이 없었다.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내가 보기에든 옳은 결정이었다. 멀리 있으면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었다. 많이 위태로워 보이는 현진의 옆에, 몸이라도 가까이 있어 주어야 안심될 것 같았다.

현진은 강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지 못했던 나와는 달리, 현진은 불을 똑바로 응시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그런 겁 없는 현진이 자랑스러웠다. 현진이 소방관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말로는 위험하다고 만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현진이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랐다. 그러나 직접 말하지 않으면 속마음은 상대에게 결코 전해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늦게 깨달았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불을 무서워하는 성격이었던 건 아니다. 나도 어렸을 때에는 현진과 다를 바 없었다. 불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아버지가 멋있기만 했다. 그때의 나는 아버지의 직업이 위험하다는 자각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소방관이 아닌’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늘 소방관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매일 밤 엄마는 나를 앉혀두고 기도를 했다. 십자가 옆에 촛불을 켜 두고 주기도문을 외었다. 기도의 내용은 늘 같았다. 아빠가 안전하길 빌었다.

“그이가 내일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

나는 실눈을 뜨고 기도하는 엄마를 훑쳐보았다. 엄마는 아빠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화장대 위에 놓인 촛불이 작게 흔들렸다. 주홍빛의 작은 불은 어쩐지 부드러워 보였다. 문득 호기심이 치밀었다. 엄마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옆에 있던 휴지를 뽑아들어 촛불 가까이 가져다 댔다. 여덟 살 때였다.

촛불은 순식간에 휴지를 집어삼켰다. 넓은 면적이 반절 이하로 줄어들었다. 때마침 돌아온 엄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수건으로 휴지를 덮고 내리쳤다. 다행히도 불은 빠르게 꺼졌지만 바닥에는 작은 그을음이 남았다.

“어쩌려고 그랬어! 큰일 날 뻔 했잖아.”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나는 엄마한테 안겨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한테도 혼쫓이났다. 그 후로 엄마는 절대로 촛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순직했다.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였다. 구조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 어른들이 트라우마가 남을 거라며, 보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봤자 어차피 트라우마는 생겼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서 가스레인지에 불도 붙이지 못했다.

4

귀국 이후 현진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반나절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오는 답장도 전부 ‘응’, ‘아니’ 수준이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마음이 조급했다. 기다리다 못한 나는 현진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현진아.”

귀가 아플 정도로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안에 있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반복해서 현진의 이름을 불렀다.

“안에 있는 거 알아.”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짜증이 난 표정의 현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부루퉁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왜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 사이로 불쑥 몸을 밀어 넣었다. 속수무책으로 문이 열렸다. 원래 대로의 현진이였다면 내가 문을 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현진은 학생 때부터 항상 나보다 활발했다.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좋고 근육이 잘 붙는 몸이었다. 반면 나는 앉아서 머리를 쓰는 일이 체질이였다. 친한 사이치고는 성격도 취미도 많이 달랐다. 힘으로는 절대 현진을 이길 수 없었다. 그가 많이 망가져 있음을 순간 실감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안 먹어?”

반팔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을 붙잡고 물었다. 현진은 포기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막무가내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미간을 짙는 현진을 신경 쓰지 않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다.

현진이 내게 처음으로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낸 건 중학생 때였다. 우리는 아

파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현진은 돌연 고백했다.

“나 커서 소방관이 되려고.”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난다. 그 날의 날짜, 요일, 무더웠던 공기까지 전부. 우리 아버지들의 1주기였다. 나의 아버지의 1주기이자, 현진의 아버지의 1주기. 나는 입을 벌리고 현진을 바라보았다. 현진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멍쩍은 표정으로 코를 삼켰다.

“갑자기?”

나는 바보처럼 물었다. 갑자기 왜? 소방관이라니? 위험하잖아.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일 년 전 오늘이 바로 그 날이잖아. 이 모든 생각이 함축된 질문이었다.

현진은 고개를 젓히고 잠시 하늘을 응시하더니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이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 지금 생각해두 어려운 문제이다. 심지어 그때의 나는 중학생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이제 막 일 년이 흐른 중학생.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내 앞가림만으로도 벅차니, 현진의 기분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나는 모르겠다. 현진이 네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위험한 소방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참 동안이나 심한 말들을 쏟아 붓고 나서야 눈앞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현진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처 받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5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

“그게 뭐데.”

나는 앞 테이블에 노트북을 내려놓고는 현진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현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전부는 알 수 없었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짐작이 갔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재난 앞에서 한없이 조그마하게 느껴지는 개인. 이번 일이 끝나더라도 언젠가 또 이런 재앙이 반복되고 말 거라는 두려움. 내가 때때로 현진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현진은 결국 나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었다. 그의 꿈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장래희망 란에는 소방관을 적어서 냈다. 어떻게 해야 소방관이 될 수 있는지, 소방관은 정확히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정보들을 모았다.

늘 내게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던 아이였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아버지들이 입었을 옷, 그들이 수료했을 교육 과정.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보다 현진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막연히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나도 하나 둘씩 맞장구를 쳐 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뒤늦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하고.

“와서 봐.”

그때도 지금도. 얽히고설킨 슬픔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대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기다리고, 상대방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 내가 지금 주저앉은 현진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미리 찾아 두었던 인터넷 기사를 화면에 띄웠다. 씨앗으로 가득 찬 가방을 멘 강아지 보더콜리가 힘차게 산을 뛰어다니는 사진이었다. 산에서는 초록빛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보더콜리는 마냥 해맑은 표정으로 혀를 길게 빼고 내달렸다.

“여기가 칠레 산불이 났던 현장이래. 나무고 풀이고 다 타 버렸대. 언제 다시 푸른 새싹을 볼 수 있을까, 다들 좌절하던 찰나에 누가 보더콜리를 생각해 낸 거야. 이 종은 원래 양치기 개라서 활동량도 많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한대. 그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씨앗이 넓게 흩뿌려질 수 있도록 한 거야. 이 씨앗이 든 가방을 통해서.”

현진은 눈을 느리게 깜박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실수든, 자연 현상이든, 또 불은 나겠지.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거야. 어째서 불이 난 건지 분노하고 그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관련자들을 원망할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불은 멎어들어. 불이 꺼진 땅에는 다시 씨앗이 뿌려지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나는 뒤이어 몇 개의 뉴스 기사를 더 띄웠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코알라. 거대한 불 앞에서 분투하는 소방관들. 어찌 손쓸 수 없어 보이는 재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일 소방관들의 사진을 현진에게 보여 주었다.

“너는 모든 불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그 틈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는 있잖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 너의 힘으로 단 한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

현진은 말이 없었다. 아주 오래도록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십 분이고 이십 분이고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현진이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너는 내가 못하는 걸 하는 애였어.”

“.....”

“그러니까 네가..... 꼭 소방관이 되었으면 좋겠어.”

6

길고 건조했던 겨울이 끝났다. 지긋지긋한 추위였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다. 봄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고 머지않아 여름이 찾아왔다. 온통 땀 냄새뿐인 여름밤은 더웠다. 창밖에서는 벌레 날개가 방충망과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자정에 가까운 밤이었다. 뉴스는 호주의 산불이 거의 진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먹은 야식을 정리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핸드폰 액정에 불이 들어왔다. ‘나 너희 집 앞이야.’ 현진에게서 도착한 문자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갔다. 현관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현진이 있었다.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안색이 좋았다. 살이 조금 오른 것도 같았다.

“무슨 일이야?”

“나 오늘부터 가볍게 러닝 할 건데. 너 생각 있으면 같이 가자고.”

“이 시간에?”

현진과의 러닝이 처음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을 달렸다. 잠이 다 깨지 않아 멍개지는 발음으로 현진에게 묻곤 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되냐?” 현진은 그러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당연하지, 하고 말했다. 소방관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은 필수고 체력 기르기에는 달리기만 한 게 없다는 논리였다.

나는 소방관 될 생각도 없는데, 친구가 뭐라고 또 의리가 뭐라고 아침마다 따라 나서곤 했더랬다. 하품을 짹짹 하며 현진을 따라 달렸다. 다 뻥 후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나란히 이온음료를 사 마셨다. 음료수를 나누어 마시다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때의 기억이 훗 치밀어 올랐다.

“싫으면 말고.”

잠시 옛날 생각에 잠긴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현진이 몸을 획 돌렸다. 나는 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누가 싫대? 옷만 갈아입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달리기엔 적합한 옷을 찾아 입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현관으로 나가자 현진이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실실 웃으며 현진의 어깨를 툭 쳤다. 이어지는 대화는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길었고 나는 그의 기분을 대충 느낄 수 있었다. 현진은 지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선을 느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4년 전에 출가했으니 집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아까부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벌써 18년째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문득 시선을 느낀다.

하지만 그쪽으로 돌아보는 일은 없다.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 시야끄트머리로 그 형상이 보였다. 군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자다. 위에 회색빛 롱패딩을 걸치고, 머리카락은 가슴께까지 늘어뜨린 모습이다. 고개를 돌리면 바로 맞닿을 거리에서, 그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잠을 자다가도 시선을 느낀다. 문득 눈을 뜨면 방 한쪽 구석에서 어둠이 움찔하고 흔들리는 기분이 든다. 처음에는 아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내게 등을 보인 채 옆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하루는 새벽에 눈을 뜨자 방 안에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 곧바로 불이야, 하고 소리쳤다. 이불을 발로 차며 곧장 거실로 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숨이 턱 막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바늘을 삼키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어둠한 연기 저편에서 높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것이 호루라기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엔 이미 내 몸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내가 서둘러 불을 껐다. 형광등 불빛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나서야 검은 연기도, 호루라기 소리도, 그저 내 머릿속에서 멎대로 지어낸 환상이었음을 알았다.

항정신병약 덕분에 상태는 예전보다 많이 호전되었다. 호루라기 소리나 여자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지만 시선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자의 두 눈은 ‘네가 죽었다’,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죽었다’. ‘전부 네 탓이다’하고 말을 했다.

잠시 후 장을 보러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재빨리 달려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 줘 살리도. 그 여자가 또 찾아 왔다 카이.”

아내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힐끔 쳐다보더니 장 봐온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약은?”

나는 먹었다고 대답했다. 아내가 나가기 전에 먹었으니 한 시간쯤 흘렀으리라. 아내는 냉장고를 열어 정리하며 “이제 약효 올라올 때 됐네. 기다려봐”하고 말했다. 나는 아내의 말대로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두 팔을 오들오들 떨면서 얼른 약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렸다.

18년 전이었다. 당시 나는 교대근무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해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신발과 가방을 사주기로 한 날이었다. 아내와 아들은 벌써 시내에 도착해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시내까지는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렸다.

다행히 출근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열차 안의 자리가 많이 남았다. 나는 매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MP3를 꺼내 노래를 들었다. 가방끈에 매달아놓은 은색 호루라기가 열차 불빛에 비쳐 반짝거렸다. 어린이집에서 소방서 견학을 가게 된 아들이 기념품으로 받아 온 것이다. 나는 열차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집중했다.

아.

누가 무릎을 치는 바람에 튀어 오르듯 상체를 일으켰다. 깜빡 졸았던 모양이었다. 괜히 머쓱해서 주위를 살피는데 열차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모두 출입문 앞에 몰려 있었다. 마치 천적을 피해 좁은 구멍 속으로 차례차례 머리를 밀어 넣고 있는 개미떼 같은 모습이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잘은 모르지만 일단 나도 저들처럼 출입문 바깥으로 뛰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가방을 꼭 움켜잡고 벌떡 몸을 일으키는데,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벗겨졌다. 가방 위에 놓아둔 MP3가 바닥으로 떨어진 모양이었다. 그 순간, 볼륨을 확 높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비명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차가운 피가 등줄기를 내달렸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열차 안을 메우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무슨 일이지.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한 발, 한 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뜨끈한 기운이 얼굴을 감쌌다. 뭔가가 열차 천장을 더듬으며 꾸물꾸물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폐를 쥐어 잡힌 것처럼 요란스레 기침을 토해내고 나서야 그것이 연기인 것을 알았다. 어디선가 불이 났다. 한 박자 늦게, 머릿속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플랫폼은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안내표지판, 공중전화박스, 물품보관함, 벽면, 조명 빛, 모두가 얇은 막을 덧댄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숨 쉬기가 어려웠다. 숨을 들이마시면 기침이 터져 나왔고, 기침을 할 때마다 장기가 타들어가는 감각이 느껴졌다. 비명소리, 토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한데 엉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연기가 눈알을 찢어대는 통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따라 막무가내로 발을 움직였다.

달리면서 누군가와 부딪쳤다. 나는 바람 빠진 공기인형처럼 가볍게 바닥을 굴렀다. 몸이 옥신거렸다. 발을 접지른 모양이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기었다. 여기가 어디고, 나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일단 움직였다. 연기로 흐릿한 풍경 저편에서, 화마가 열차 출입문 바깥으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바닥을 기다보니 계단이 나왔다. 짐승처럼 네발로 계단을 올랐다. 입에서는 태엽이 감기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뒤에서 뭔가가 쫓아오는 기분이었다. 돌아보면 연기 밖에 보이지 않았다.

겨우겨우 지하 1층에 도착한 나는 머릿속으로 출구를 더듬어보았다. 빛이라고 할 만한 것

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일단 달렸다. 어두운 풍경 저편으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손을 더듬어가며 그곳으로 다가가려는데 뭔가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넘어지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는 목소리였다.

“거, 누구 있습니까?”

깜짝 놀라 소리쳤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연기를 더듬으며 손을 뻗자 뭔가가 손끝에 닿았다. 매끈한 감촉이 느껴졌다. 얼굴을 앞으로 가져가 그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경악했다.

사람이었다. 초로의 남자였다. 그는 등을 구부린 채 자신의 뇌를 확인하려는 듯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었다. 벌어진 입으로 침이 흘러나와 복도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호흡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없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으아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공포감이 온몸을 엄습해왔다.

“으아아아악!”

나는 정신없이 팔을 움직여 바닥을 기어갔다. 저 멀리 보이던 그림자가 성큼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에 닿은 선뜻한 무언가가 철컹철컹 소리를 냈다. 방화셔터였다. 방화셔터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암담한 심정으로 연기 저편에 널브러져 있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남자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모두 방화셔터에 앞이 가로막힌 사람들이었다.

무릎을 주워 모으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려움과 공포가 내 몸을 짝 부여잡고 흔들었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멍뚱뚱 타넘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아났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나는 반대편 출구로 올라갈 생각이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세상은 암흑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갔다. 복도를 지나는 중에 뭔가에 발목이 잡혔다. 갈고리에 걸렸다고 착각이 들만큼 강하고 날카로운 감각이 발목 아래에서 느껴졌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연기 저편에서 그런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갈고리가 아니라 젊은 여자였다. 그 사람이 여자인 줄 알았던 이유는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는 손을 떼어내려고 상체를 숙였기 때문이다.

“이, 이거 놓으이소.”

“배,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여자는 거뭇거뭇하게 때가 탄 롱패딩 안에 군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옆으로 누운 원피스의 배 부분이 뽕뽕하게 부풀어있었다. 이마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는 여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기름을 두른 것처럼 손이 자꾸만 미끄러져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조바심이 났다.

“이거 놓으라카이!”

나는 공을 차듯 발을 들어올렸다. 그제야 여자는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 바람에 등에 매고 있던 가방끈이 벗겨졌다. 여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훌쩍 몸을 날려 내 가방을 콧 낚아챘다.

“와이카는교!”

가방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여자를 데리고 가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다.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만삭인 여자를 데리고 갈 순 없었다.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나는 살아남고 싶었다.

나는 가방에서 손을 놓았다. 헉, 하는 숨소리와 함께 여자의 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어둠 속을 달렸다. 등 뒤에서 여자가 뭐라고 소리쳤다. 나는 못들은 척했다. 조금 지나자 우는 소리가 따라왔다. 뽁뽁, 희희, 희한한 소리였다. 그것은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호루라기 소리였다. 여자가 가방에 매달아놓은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모양이었다. 뽁뽁 울어대는 그 소리가 나를 책망하듯이 언제까지나 쫓아왔다.

귀를 막고 달렸다. 터져 나오는 울음 때문에 호흡하기가 몇 배로 힘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이 나왔다. 정신없이 올라갔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출구인가 하고 생각할 즈음 “거기 계십니까?”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싶더니 이윽고 주황색 방화복이 연기를 뚫고 시야에 들어왔다.

“내, 내는 아무 잘못 없소……. 아무 잘못 없소…….”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그 직후 나는 정신을 잃었다.

한동안 뉴스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건만 다루었다. 삶을 비판하던 심신미약의 남성이 휘발유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내가 타고 있던 위치에서 두 칸 떨어진 곳이었다.

높은 곳에서 촬영한 대구 시내는 어쩐지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다. 도로 전체가 흑색, 적색, 백색뿐이었다. 흑색은 연기, 적색은 소방차, 백색은 구급차다.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 검은 용오름은 지옥을 연상케 했다. 지옥이라고 밖에 표현하지 못할 암흑 속으로, 산소통을 멘 소방관들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방송사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현장의 참혹함, 직접 목격한 사고정황, 살아남은 과정. 그들은 많은 것을 궁금해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

목으로 일관하며 사람들이 보이면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다. 그 이후로 시내에 나가지 않았다. 지하철도 탈 수 없었다. 불시에 들리는 구급차 소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하철 도착음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숨을 헐떡였다. 3년간 입퇴원을 반복했다. 다니던 공장은 진즉에 그만두었다. 내가 이렇게 된 이후로 아내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다. 아내에게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음, 이제 곧 18주기구나.”

식탁 맞은편에서 아내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시선의 위치를 보아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볼륨을 없애놓아서 나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몰랐다. 매년 2월이 되면 나는 텔레비전을 일절 쳐다보지 않는다.

“아저씨도 추모하러 함 가보지?”

구운 고등어 살점을 도톰하게 잘라내 내 밥그릇에 올려주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

“일 없다.”

“혹시 아나? 그 아가씨가 용서해줄지.”

“일 없다 안 카나!”

나는 내팽개치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내의 어깨가 움찔하고 흔들렸다.

“와 소리를 지르노! 아니든 평생 그카고 살래? 사람 칼로 찢러 죽인 놈도 교도소에서 웃고 산다카드라. 당신은 와 그래 사는데!”

나는 드르륵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슬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커튼을 쳐둔 방은 어둡했다. 침대 매트릭스에 등을 기대고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자니 문득 담배가 생각났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담배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 라이터 불을 켜기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벽 구석에서 여자가 나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내가 거 가가 용서를 빌든, 그카든 내 용서해주겠소?”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용서가 안 되겠지예.....”

나는 무릎을 세우고 그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머리 위로 호록호록, 하고 호루라기가 울어댄다.

“와 이래 떨어 쏘노. 가만히 좀 있그라.”

내 무릎을 탁 치며 아내가 말했다. 백발의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슬쩍 우리를 보고는 웃음을 짓는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떤 모양이었다. 차체가 아래위로 흔들리기에 뭔가 싶었더니 내가 원인이었다.

중앙로역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2월 18일. 아직 봄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

도로 공기가 찰다. 그런데도 내 셔츠 안은 땀으로 흥건했다. 내가 푸슈슈, 하고 숨을 내쉬자 아내가 맞잡은 손에 힘을 넣어주었다.

거리가 생소했다. 그대로라면 그대로고, 달라졌다면 달라진 풍경이었다. 전체적인 건물구도는 같았지만 상점의 간판이나 길가에 심어진 나무는 낯설었다. 18년 전 그날처럼, 젊은이들 몇몇이 서로 꼭 붙은 모습으로 거리를 지나간다. 하늘이 어스레한 게 당장이라도 뭔가 쏟아질 것 같았다.

택시가 길가에 멈춰 섰다. 중앙로역 3번 출구 앞이다. 그날, 내가 탈출했던 출구는 몇 번 출구였을까.

택시에서 내리자 무릎이 덜덜 떨려왔다. 아내가 손을 잡아주었다. 아내의 다른 손엔 새하얀 국화다발이 들려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아내는 내 손을 놓으며 그 손에 국화다발을 들려주었다.

“내려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오이소. 참말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저 시커먼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날 들이마셨던 공기의 뜨거움, 눈알을 잡아 찢던 연기,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들. 머릿속으로 그날의 정경을 또렷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어째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 무섭지도 않나.

아내가 가볍게 내 등을 밀었다. 나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모, 문한다.”

나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못 들어가겠다카이.”

나는 때를 쓰듯 두 다리를 ‘팔 자(八)’로 뺀 채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턱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힐끔힐끔 시선을 주었다.

“사람들 지나다니게 이리로 나온나.”

아내의 말에 우리는 출구계단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5분쯤 그렇게 있자,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땀이 식으면서 몸이 추워졌다.

“후회 안 할 자신 있나?”

어제 먹은 저녁메뉴를 물어보듯 담담한 목소리로 아내가 말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힐끔 쳐다본 다음 시선을 그대로 허공에 띄웠다. 후회라면 18년 째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못한다. 못하겠다. 저 아래로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럼 고마 집에 가자.”

내 침묵을 오해했는지 아내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나는 재빨리 아내의 손목을 잡아끌

었다.

“자, 잠깐만 있그라. 조금만 더 있다가자.”

더 있어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도 조금만, 조금만 더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다.

쪼그려 앉은 자세로 지하철 출구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또 올라왔다.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전에는 저랬을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젊은 여자. 힘겹게 손수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노인. 출구를 빠져나와 저만치 앞서가는 버스를 향해 허겁지겁 뛰어가는 셀러리맨. 모두 그날을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나만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출구로 한 여자와 남자가 올라왔다.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머리 하나쯤 더 컸다. 엄마와 아들로 보였다. 팔짱을 낀 채 꼭 붙어 걷는 모습이 꼭 다정해보였다.

“고만 가자.”

무릎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고작 몇 분 앉아 있었다고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오래 전에 알았다. 어쨌면 그날 들이마신 연기가 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른다.

“저.....”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날아왔다. 돌아보니 좀 전의 모자였다. 아들은 저만치 세워두고 여자 혼자 나에게 다가왔다.

아내와 아는 사람인가 싶어 상체를 물렸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내 얼굴을 쳐다봤다. 여자는 확실히 우리에게 불일이 있어 보였다.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기억하시겠어요?”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자세로 여자가 물었다.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처럼 심하게 갈라지는 목소리였다. 목 아래까지 오는 밤갈색 머리에 눈썹이 짙었다. 얼핏 보면 어려보이지만 표정을 지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혹시 여자의 남편과 아는 사이인가. 그런 생각으로 나는 뒤에 서 있는 여자의 아들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남자아이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다. 지겹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발 끝을 바닥에 툭툭 박아대고 있었다. 그 움직임에 맞춰서 목에 걸어둔 뭔가가 좌우로 흔들렸다. 완만한 포물을 그리면서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고 있다. 기억에 있는 물건이었다.

“아아.....”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으아아.....”

무릎이 툭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 소리가 내 입을 타고 흘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나는 수 초가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

“어, 어떻게…….”

호루라기였다. 남자아이는 호루라기 줄을 목에 걸고 있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18년 전 내가 잃어버렸었던 그 호루라기가, 남자아이의 목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사, 살려주이소. 내, 내, 내가 다 잘못했심더.”

엉덩이로 땅바닥을 밀며 도망쳤다. 여자는 내가 물러난 만큼 다가와 추위로 벌게진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몸을 흔들며 손을 뿌리쳤다. 내 앞에서 있는 여자가 마치 이승과 저승의 매개자처럼 생각되었다.

“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함만 봐주이소! 내, 내 다시는 안 그럴게예.”

“맞지요? 아저씨, 맞지요?”

여자가 내 목소리를 덮어버리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내 두 손목을 강하게 쥐어 잡았다.

“아저씨 덕에 살았습니다. 호루라기 덕분에, 아저씨 호루라기 덕분에 살았습니다. 소방관들이 구해줬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소방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흐느낌이 숨을 밀어내는지 여자는 말하는 중간에 씩씩씩, 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여자의 얼굴이 붉게 일그러져 보였다. 어느새 나는 울고 있었다.

“사, 살아 있었는교?”

일그러진 시야 저편으로 실루엣이 아래위로 움직인다.

“참말로 살아 있었는교?”

“아저씨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 있었는교!”

그날의 공포, 슬픔, 허무함, 분노가 울음소리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거리의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듯 우리 둘을 둘러쌌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내도, 여자의 아들도, 그들과 비슷한 얼굴을 했다.

“모, 목소리가—.”

내 말에 여자는 두 손으로 가볍게 목을 가렸다. 무엇이 그녀에게서 목소리를 앗아 가버렸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참말로 미안합니다.”

2003년 2월 18일. 연기가 눈을 찌르던 그날처럼, 나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동안 울음을 터뜨렸다. 줌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내리기 시작한 눈이 하얀 재처럼 팔랑팔랑 몸을 흔들며 여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딸이 문 뒤에서 키득거리며 말했다. 아빠, 소방관이 영어로 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딸은 자신이 배운 단어를 자랑하길 좋아했다. 장은 딸이 물어올 때면 알아도 모르는 척, 뭔데? 라고 되물었다. 그러면 딸은 또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른다는 듯 혼자 막 웃다가 말했다.

파이어 파이터. 불이랑 싸워서, 불, 싸우는 사람. 더해서 파이어 파이터야.

그렇게 말하고는 딸은 안방으로 뛰어갔다. 아내와 아들은 그런 딸이 익숙하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은 예순의 나이로 소방관을 은퇴했다. 서른다섯에 처음 일을 시작했고, 인생의 반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대중이 바라보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만나며 장의 마음속에도 사명감이 생겼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만족스러웠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가 은연중에 중얼거렸는지 딸이 대답했다. 아빠, 그건 아지랑이야. 아른, 아른거리는 거지. 일곱 살 된 막내딸은 가끔 뭔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태평한 말을 하곤 했다. 어떻게 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지랑이든 뭐든 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맞았으니까.

아버지, 불어요.

아들이 말했다. 장은 그제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의식했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잡생각이 많아졌다. 장이 후, 하고 가볍게 바람을 불자 촛불이 꺼졌다. 성냥팔이 소녀가 붙인 성냥의 불이 꺼진 것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가족들도 동시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공연의 커튼콜처럼 박수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아내였다. 며느리가 빵칼을 가져와 케이크를 잘라서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다. 이어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앞에도 놓았다. 막내딸의 몫은 없었다. 돌아보니 딸은 케이크에는 관심도 없는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장도 그 곁에 가서 말을 걸고 싶었다. 케이크도 생일도 장은 관심이 없었다.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나이에 생일을 챙기는 일은 무용하다고 생각했다.

장의 생일은 음력으로 챙겼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장의 생일도 바뀌었고, 그 탓에 매년 까먹고 지나갈 때도 많았다. 가족들은 그때마다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장은 정말 괜찮았다. 생일을 특별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달력을 보다가 문득 제 생일이라는 걸 알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생일. 生, 日. 한문 시간에 배운 한자 두 개가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면서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 여행 가서 다 같이 푹 쉬고 와요.

아들 부부는 장의 은퇴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러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행선지는 제주도였다. 며느리가 팜플릿 여러 개를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펼쳐 보였다.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예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자 아내는 흥미가 동한 듯 가까이 붙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장은 딸이 들어간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언제쯤 들어가면 되는 걸까? 생일 주인공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걸까. 사실 이미 장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본디 주인공이란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인물일 텐데, 장은 중심은커녕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가족들의 잘못은 아니었다. 장은 언젠가부터 허공에 붕 뜬 사람이었다. 들뜬 아들과 아내를 두고 산통을 켤 수는 없어 가만히 앉아 처음 그랬던 것처럼 케이크에 꽂힌 초를 응시했다. 불은 꺼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까맣게 탄 심지의 주변을 맴돌며 위로 올라가던 연기 역시 사라졌다. 아지랑이. 그는 그 말을 천천히 입속에서 발음해보았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딸이 후, 하고 불어낸 민들레 홀씨가 낮은 곳에서 동실거리다가 돌연 불어온 바람에 힘입어 하늘로 훨훨 날아갔다. 홀씨를 따라 시선을 옮기던 딸이 물었다. 아빠, 저건 뭐야.

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쪽 뺨은,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을 뿐이다. 뭐가? 장이 묻자 딸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아내를 보고 따라하는 게 틀림없었다. 막, 번져 보이는 거 있잖아. 딸이 손바닥을 짝 펴서 허공을 닦듯 문지르며 말했다. 번져 보이는 거? 말을 들은 장이 다시 한번 딸이 가리켰던 방향을 보았다. 아른거리며 올라오는 게 보였다.

아지랑이야.

이글이글, 조용하게 공기가 끓는 것 같은 그 광경을 보며 장은 딸의 손을 더 짹 쥐어보았다. 생이란 무엇인가. 나의 생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서른다섯, 처음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날을 장은 지금도 기억한다. 삼십 년 가까이 지나도 잊지 않았으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선배들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했다. 첫 출동은 잊을 수 없다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흔히 소방관의 출동이라고 하면 방화복을 입고 빨간 구급차에 올라타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장 역시도 그랬다. 그를 위한 연습과 준비도 많이 했다. 본격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며 소방공무원의 일이 단순히 불을 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첫 출동은 막연하게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장의 첫 출동현장은 화재현장이 아니었다. 응급하게 실 어가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한 물골을 한 봉고차와 저 멀리 튕겨 나간 운전자의 시체 한 구가 있었다. 도로 위에는 여기저기 하얀 것들이 널려 있었다. 장은 처음에는 그것이 숨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정리를 위해 집어 들고 보니 그것은 뇌수였다.

죽은 이는 돌아다니며 이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날 새벽에도 장사를 위해 이불을 받아 가는 길이었다. 결혼한 지 일 년이 되었고, 임신한 아내가 있다고 했다. 아내는 새벽에 나가는 그를 위해 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 도로 위에 널린 하얀 솜과 뇌수, 그 사이에는 밥알과 볶은 김치 따위도 있었다. 어째서 이런 세세한 일들을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은 그 아내에게 전화해 배우자의 부고를 알려야 했다. 그 순간의 딱딱함. 수화기를 든 장은 수화음이 끊기지 않길 바랐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 죽은 이의 아내가 푹 잠들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수화음이 몇 번 울리지 않고 끊기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의 아내가 대답했다.

장은 지금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는, 그러나 그렇게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절절한 속사정만은 아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어린 딸의 울음소리보다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듣기 싫다면 멀리 수화기를 떼어놓고 듣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듣는 일뿐인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얇은 벽 너머의 이야기를 엿들으려는 사람처럼 숨을 죽이고 흐느낌에 집중했다.

그날 장은 퇴근길에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일부러 길을 돌아 그 도로 앞을 지났다. 새벽과 달리 차가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간간이 도로가 빌 때면 햇빛에 아지랑이가 들끓고 있었다. 지글지글. 군대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나 멍하니 들여다보았던 일렁이는 공기를 보며 혼자 숨죽여 울었다. 내 것도 아닌 죄책감과 딱딱함. 애초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놓아줄 수 없었다.

잠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을 때마다 죽은 이를 떠올렸다. 모르고 가볍게 집어 든 뇌수의 몽클한 감각, 흐느끼는 울음소리. 그것은 시끄럽게 울리던 출동 사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한 알람이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그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랬다.

장의 아들과 딸은 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소방관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선생님이 말해줬다고 했다. 반 아이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장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발표한 발표문에는 “우리 아버지는 소방관입니다. 불이 나면 우리 아빠가 다 구해주실 겁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관찰마다 다른데, 하는 생각을 하며 피식 웃었다. 딸은 나도 아빠 같은 영웅이 될래요, 하며 애교를 부렸다.

막상 일터에서 장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은 아주 잠시,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더 많았다. 자살 시도를 한 젊은 청년을 가까스로 살렸을 때 장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에게 인계하기 직전까지도 장은 청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마침내 청년의 심장이 다시 뛰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팔이 아팠어도 너무 기뻐서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청년이 민원을 제기했다. 본인은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장이 무리해서 살리는 바람에 생활이 어렵다. 장은 할 말을 잃었다. 청년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루하루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장은 일이니 당연히 사람들을 구하려 애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장이 해야 할 일이니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하면 매서운 눈길을 던진다. 물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면 사막에서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하다가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지쳤던 마음이 순식간에 산뜻해진다. 그 고맙다는 말 하나로,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이유로는 가족을 위해 일했다.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딱 한 번,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동료 대원끼리 배구를 즐겨 했다. 일은 안 하고 논다며 똑바로 처신하라는 민원이 들어온 후로는 자제하기 시작했다. 민원이 들어온 날 소방서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잘 모를 수 있지, 생각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그랬던가. 하는 모호한 말로 버무린 온갖 잡념이 그들 마음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료 김은 웃으며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나가서 배구를 하자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언제나 유쾌한 사람이었다. 민원인 응대에 있어서 늘 적극적으로 임했다. 사실 도를 닦다 온 게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화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배구가 중요하냐, 누군가 면박을 주자 김은 내 말이! 하고 끄끽거리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희한한 웃음소리에 다들 결국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배구 일은 기분 좋게 일단락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은 김과 함께, 모두와 함께 다시 나가 배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별이 좋은 어느 날, 누군가가 성묘하며 버린 담뱃불에 산불이 났다. 누군가 말했었다. 불 타는 데 십 초, 복구하는 데 십 년. 화재현장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지만, 그해 가을 산불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고 장과 동료들은 새까맣게 타서 일주일 내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산이 불타는 마당에도 자신의 발에서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사람들 때문에 단속하느라 또 고역이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장이 욕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서면 김이 장을 팔로 막아서고 어르신, 하고 공손하게 말을 걸었다.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먼저 데려간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지 않은 곳이라서 하늘로 데려가 호강을 시켜준다는 것이다. 딸이 말해줬다. 김도 그런 것이라고 장은 생각하고 있다. 산불 진압 과정에서 김은 목숨을 잃었다. 김은 장이 처음으로 잃은 동료 대원이었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도 유쾌한 척 장에게 말했다. 이따 보자. 장도 대답했다. 그래, 배구하러 가야지. 금방이라도 만날 것처럼 헤어졌다. 정말 그럴 셈이었다. 장은 김의 영정 앞에서 세 번 절하면서 금방 만나리라 생각했다.

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도, 타인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도 앓는 사이에 목숨을 잃는다. 반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나는 일도 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에는 귀천이 없다. 장은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의 김이 금방이라도 끄끽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았다. 멎었던 심장이 장의 손 아래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장은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었다. 나의 생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은,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두서없이 밀려드는 마음들. 첫 출동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시작인 걸까. 아니면 끝이 나버린 걸까. 내 삶은. 내려놓고 싶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살겠다고, 어쭙잖은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장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딸의 생일 전날, 딸은 잔뜩 들떠있었다. 그간 일이 바빠 장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가장 섭섭해한 것은 일곱 살짜리 막내딸이었다. 아들은 그래도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라고 나를 의젓한 척하려 애썼지만, 딸은 속내를 숨기지 않고 매번 그가 늦은 밤 돌아오면 투덜거렸다. 장은 아들과 딸에게 약속했다. 너희들 생일만큼은 모든 시간을 비우겠다고. 아이들은 믿지 않는 척 뽀로통한 표정을 했지만 기뻐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의 생일날, 장은 연가를 내고 가족을 위해 오롯하게 시간을 할애했다.

뭘 하고 싶어?

놀이공원 가고 싶어.

가서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다 같이 회전목마도 타고, 귀여운 머리띠도 할 거야. 딸이 모든 계획을 다 짜놨다며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다이어리도 보여주었다. 속지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당일이 되면 보여줄 거라며 꽤 새침하게 말하는 게 꼭 우습고 귀여웠다. 그때 딸아이가 유치한 분홍 다이어리를 쥐고 있던 통통하고 작은 손가락, 여름이라 더운 날씨에 살짝 땀에 젖은 앞머리를 기억한다.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하얀 원피스를 입고, 덧니가 자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도 너무나 생생하게.

놀이공원에 도착해서 딸은 다이어리를 펼쳐서 자신이 타고 싶던 놀이기구, 먹고 싶던 음식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가족들을 이끌었다. 회전목마, 관람차, 빙글빙글 돌아가는 찻잔, 구슬 아이스크림, 추로스, 핫도그 등등. 즐거운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딸은 동화를 테마로 한 트릭 하우스에 가고 싶다고 했다. 들어갈 수 있는 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뿐이었다. 조금 지쳤던 장과 아내, 아들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다. 팸플릿에 적힌 걸 보니 안은 미로처럼 되어 있다고 했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방향은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 장은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큰일이겠다고 생각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부정 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종종 장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일이 꼬였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 트릭 하우스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을 때, 그것이 이산화탄소일 거라고 가볍게 넘겨짚지 말았어야 했다. 안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새된 목소리로 외칠 때, 재빨리 알아채고 뛰어들었어야 했다.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 무언가 조처를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 일이다. 장의 딸은 영웅이 되었다.

제일 먼저 불이야! 를 외치고 미로 속 아이들이 피난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장의 딸이라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안전요원이 말했다.

따님 덕분에 많은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미로를 거꾸로 빠져나오며 만나는 아이마다 불이 났다고, 어서 불이야! 외치라고 했다. 그리고는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길을 따라 나가라고 했다.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작 일곱 살 난 아이가 어떻게, 왜. 그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문상 행렬을 묵묵히 맞았다. 매번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트릭 하우스에 들어갔던 아이들의 부모들이었다. 고맙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던가.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쪽방에서 장은 멍하니 생이 도대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의 삶은 진작에 끝났다.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첫 출동 때 끝났다. 장은 소방관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다. 그 일은 자신이 할 일이었다.

그 후로 장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어딘가 가는 일이 두려워졌다. 잠시 짐을 내려놓은 사이 누군가가 짐을 지게 될까 두려웠다. 세상 모든 짐은 될 수 있다면 장이 지고 싶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몰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장에게 은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 쪽 이어오려던 어떤 의지가 가위로 끈을 자른 듯 뚝, 끊어진 것 같았다.

공항에서 만난 아들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장과 아내를 맞았다. 새벽에도 공항은 부산스러웠다. 아내와 아들은 잠시 먹을 것을 사 오겠다며 며느리와 장을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 장은 며느리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다. 공항의 소음 속에 두 사람만이 오직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며느리와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 여행이 달갑지 않은 이유 중에는 분명 그것도 한몫을 할 것이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곁에 있는 아내와 아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타인인 며느리라고 알 리가 없었다. 애꿎은 바짓자락에 손을 손바닥을 비볐다가 말았다가,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었다가 말았다가 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다.

아버님.

응?

며느리가 말을 걸 줄은 몰랐다. 오래 입을 다문 탓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가까이서 보니 며느리에게는 텃니가 있었다.

저기 오고 있네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장이 고개를 돌리니 멀리서 아들과 아내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아들과 아내는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며 손에 들려주었다. 다 못 먹는다는 말에 아내가 애정을 담아 나무라듯 말했다.

그래도 잘 먹어줘야지,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해.

임신? 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았다. 며느리는 장의 표정을 알아채고는 아들의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당신, 말 안 했어?

어. 말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상황을 알아채고는 아이처럼 키득거렸다. 장은 혼자 얼빠진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아들이 옆구리를 때만지며 말했다.

지은이 임신했어요, 아버지.

아직 성별은 모르고요. 이제 막 한 달 되었어요. 첫 손주. 아들이 결혼할 때 어렴풋이 생각은 했었지만 눈앞으로 다가오니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비행기 좌석에 올라타 아내가 며느리에게 받았다며 초음파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여주었다. 애가 우리 손주야. 아내가 하얀 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언젠가 아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 보여준 초음파 사진이 생각났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비행기가 덜덜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진동이 느껴졌다. 바퀴가 구르는 느낌이 좌석 바닥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이내 비행기가 도약하는 순간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시야가 까맣게 되었다. 이어질 것이다. 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사람을 구한다. 미래는 그렇게 이어진다.

손바닥 틈새로 환한 햇살이 들어왔다. 하얀 덧니, 하얀 점. 귀가 멍멍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제주도는 무척 더웠다. 야자수도 자란다더니 과연 그럴 만도 했다. 아들이 렌터카를 빌리는 동안 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 보이는 흡연 구역 바닥에 떨어진 담배꽂초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부주의한 누군가가 제대로 불을 끄지 않은 게 분명했다. 장이 끄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어린 남자아이가 달려와 담배꽂초를 짓이겨 밟더니 집어 들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손을 탈탈 털고, 그 냄새를 맡고는 으악!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냅다 도망치듯 뛰어갔다. 벽 뒤에서 어디론가 사라졌던 딸이 그것을 보고는 파이어 파이터! 하고 남자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말했다. 아지랑이.

그래, 아지랑이.

시야가 아른거리고 있었다.